

더 나 : 다  
REPUBLIC OF HWASEUNG



여 권  
PASSPORT

2015 Summer 화승그룹 Vol.39 여름호

# D. Better Tomorrow

Turn around 2015

2015 Summer vol.39 2015년 6월 10일 발행

발행인 글·사진 기획·진행 현승훈 DBT 사람들 화승그룹 회장실 박동호 화승그룹 홍보팀 김병호, 박지선, 심일욱 하이미디어 P&I 이영진, 이진우, 한수빈, 정윤정 (주)하이미디어 P&I(02-795-3364) 노은주, 정윤희, 이예슬 NAVI STUDIO(02-511-7277) 서울문화예술전문학교 뷰티예술학부 (지도교수: 송승연, 헤어&메이크업: 윤은혜, 김다솔, 박진주, 심수연) 하이테크컴 (주)키움프린팅

발행처 화승그룹(www.hwaseunggroup.com)  
주소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79 (연산동) 장천빌딩 화승그룹 회장실  
전화 051-850-7037, 팩스 051-850-7001  
E-mail iwsim9025@hsrna.com

\* 본 사보 표지는 실제 여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행을 위한 이미지입니다.



## 여행 PASSPORT



성/Surname

**LEE**

이름/Given names

**JAEHUN**

도시/City

**YANGSAN**

생년월일/Date of birth

**05 SEP 1985**

성별/Sex

**M**

입사일/Date of

**02 JUNE 2014**

기간만료일/Date of expiry

**배를 물겠습니다!**

사원번호/No.

**31538**

소속회사/Team

**화승T&C 관리팀**

한글성명

**이재훈**

법학을 전공한 재훈이는 화승T&C 생산기능직 사원으로 입사합니다. 그해 12월 사랑하는 그녀와 결혼을 합니다. 화승 사람이라는, 자동차부품을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땀 흘린 10개월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 관리팀으로 순환보직 제의를 받습니다. 함께하던 동료들이 눈에 밝혀 고민하던 그는 어차피 같은 회사에서, 늘 볼 수 있는 그들이기에 흔쾌히 관리팀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화승T&C의 전 부서를 지원하는 관리팀 팀원으로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떠나고, 만나고, 더불어 만드는 우리의 인생 여행처럼 순환의 길을 걷습니다. 떠나고, 돌아서 온 재훈이의 인생 여행을 응원합니다.

# 和承가족에게 드리는 6月 현승훈의 화담(和談)

'현승훈의 화담(和談)'은 화승(和承)을 담은 직원과의 소통을 중요시 여기는 회장님의 경영 실천 의지가 담긴 편지글입니다. 2014년 6월부터 한 달에 한 번 국내외 전 계열사 직원들에게 전달되고 있으며, 그룹과 그룹문화에 대한 평소 회장님의 견해가 오롯이 담겨있습니다.

## 나눔

생소하게만 느껴지던 2015년도 어느덧 절반을 향해 달려갑니다. 따뜻한 봄기도 잠시, 이제는 벌써 무더운 여름의 문턱에서 매일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부처님에 대한 108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맑은 기운으로부터 긍정적인 생각이 오고,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무거운 짐 등을 부처님께 마음으로 고(告)하고 예를 갖추으로써 생각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일 빼놓지 않는 것이 바로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저와 인연을 맺고 있는 모든 이에게 복(福)을 짓게 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저의 도움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과 함께 매일 기도를 합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떤 인연을 맺을지 항상 기대 가득한 설렘으로 하루를 맞이합니다.

불교에는 자비(慈悲)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는 사랑한다는 뜻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우정을 갖는 것입니다. '비'는 탄식한다는 뜻으로 중생의 괴로움에 대한 깊은 이해·동정·연민의 정을 나타냅니다. 즉 남에게 행복을 베풀며, 고뇌를 사라지게 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끔 길을 가다 탁발(托鉢)을 하는 스님들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탁발은 스님들이 저잣거리의 집들을 방문하며 쌀 등을 구하는 것을 일컫는데 이것은 수행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나눔을 통한 선업의 덕을 쌓는 깨달음이기도 합니다. 과거 어느 한 날, 제자는 부처님이 가난한 집 앞에서 탁발을 하자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타인을 위해 선행하고 나눔을 행하면 복을 받기에 이 가난한 집으로 하여금 걸식을 하면 그로부터 오는 복을 이 집에 갖들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나눔은 평등해야 하며 남을 돕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나누면 복을 받는다는 옛말처럼 남을 위한 마음이 크면 클수록 자신에게 돌아오는 복 또한 거저되지 않을 것입니다.

화승가족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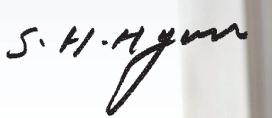
어느 순간부터 작은 미덕(美德)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높이 올라가는 건물만큼이나 욕심과 이기심 또한 높아져 갑니다. 귀를 닫은 채, 자신의 목소리만 높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행여나 상대의 친절을 불신과 의심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먼저 손을 내밀고 내 것을 함께하는 '나눔'을 새기시길 바랍니다.

주는 기쁨, 나눔은 곧 배(倍)가 됩니다.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남을 위한 선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하루에 하나, 남을 위한 도움으로 자신의 삶을 살찌우시길 바랍니다.

맑은 기운 가득한 6월  
행복한 나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2015년 6월 1일

현승훈



## 2015년 4월

### 리더십(Leadership)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모두가 힘을 합쳐 올바른 방향으로 건실한 근본을 다지길 기원합니다.

## 2015년 5월

### 가족(家族)

나를 존재케 하고 내가 바른길을 가야 하는 이유의 근간(根幹)인 부모, 자식, 즉 가족을 위해 의미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드셨으면 합니다.



# CONTENTS

2015 Summer Vol. 39

## Open day

04 현승훈의 화담(和談)

08 Open Your Life // 떠나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

## 그곳으로 떠나다

12 Interview 1 // 여행책방 '일단 멈춤' 송은정

16 Interview 2 // 극한 여행 마니아 화승소재 생산팀 윤종불 사우

20 화승의 속살 // 여기가 거기 화승여지도

24 역사의 향기로 떠나다 // 역사 그룹교육, 천년의 신라 탐방

28 Photo Space 1 // 뜨겁고도 시원한 여행지, 충남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32 화승 컬렉션 // 4인 4색 여행 가방을 엮보다

36 진심 맛집 // 부산&서울 숨은 세계 음식 맛집

40 Photo Essay 1 // 익숙한 풍경 낯설게 보기

—

## 그를 떠나다

46 Interview 3 // D.L. 연애조작단 이대로 대표

50 첫사랑 프로젝트 // 첫사랑 첫사랑, 누가 말했나

54 Story Zip // 그토록 뜨거웠던 연인들은 왜 헤어졌을까?

58 엄마 품을 떠나다 //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관계, 엄마와 딸

62 Photo Space 2 // 사라지는 공간을 찾아서

66 Photo Essay 2 // Good Bye, 너에게 이별을 고하다

# Do Better Tomorrow

www.hwaseunggroup.com

## 내일로 떠나다

74 Interview 4 // 니들이 에로를 알아? 영화감독 봉만대

80 오늘 또 새로운 화승 // 드론, 화승을 날다 2

82 화승의 미래로 떠나다 // 선택과 집중이 만들어낸 신화, 화승

86 글로벌 화승 // 화승비나 창립 13주년 기념 행사

92 화승 아카데미 1 // 화승비나 신입사원 신발 제작 공정 체험

96 화승 아카데미 2 // 2015 화승그룹 임원화요특강, 글로벌 경제 트렌드를 읽다

98 With Project // ① 화승 꿈틀 프로젝트 2기: 소년, 소녀들의 꿈을 후원하다

② 제3회 아싸라비아 나눔축제 ③ 2015 부산 자원봉사자 후원

—

## Hawseung Reports

106 주말 농장으로 떠나다 // 2015 화승이랑

110 화승에 이런 일이

112 그룹 뉴스

114 마음을 움직이는 메시지

떠나는 때를 아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 떠나는 데는

.....  
.....  
.....

# 이유가 없습니다.

## 떠납니다.

그곳으로 떠납니다.  
그저 좋아서 떠납니다.  
떠나는데 굳이 이유를 댈 필요는 없습니다.  
그 무엇을 바라거나,  
그 어떤 욕심 또한 무의미합니다.

## 떠납니다.

그 사람을 떠납니다.  
떠나야 하기에 떠납니다.  
떠나는데 굳이 이유를 댈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나를 위해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고합니다.

## 떠납니다.

내일로 떠납니다.  
더 큰 내일로 떠납니다.  
어제를 돌아보고, 오늘을 마주 보고,  
내일을 내다보는 시간 속에  
더 큰 나를 발견합니다.

2015년 여름에 만나는 <DBT>의  
두 번째 재충전 테마 '떠나다'  
그곳으로, 그 사람을,  
그리고 회송의 내일로 떠나는  
여행과 이별, 만남 속에서  
나는 한 뼘 더 성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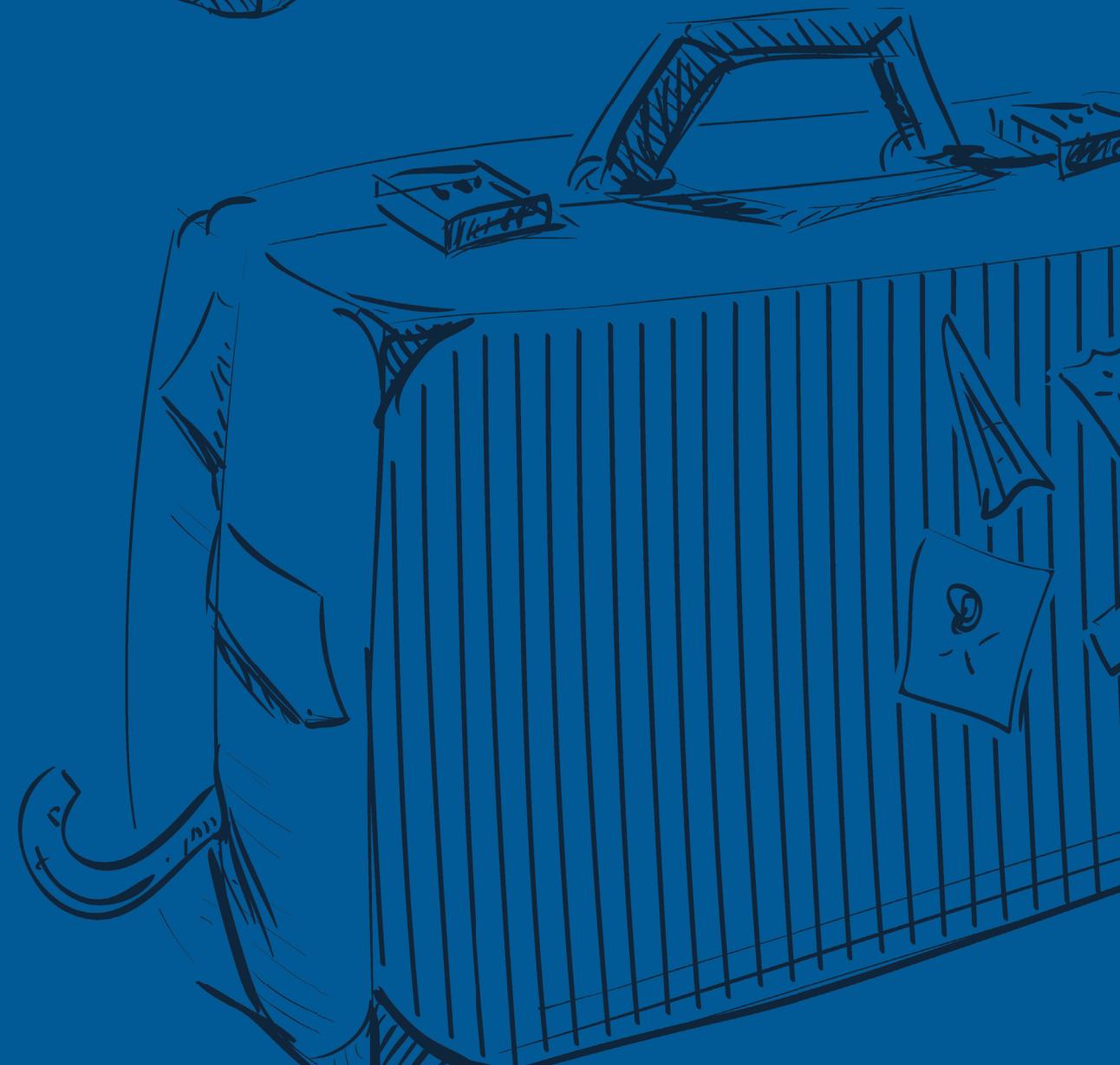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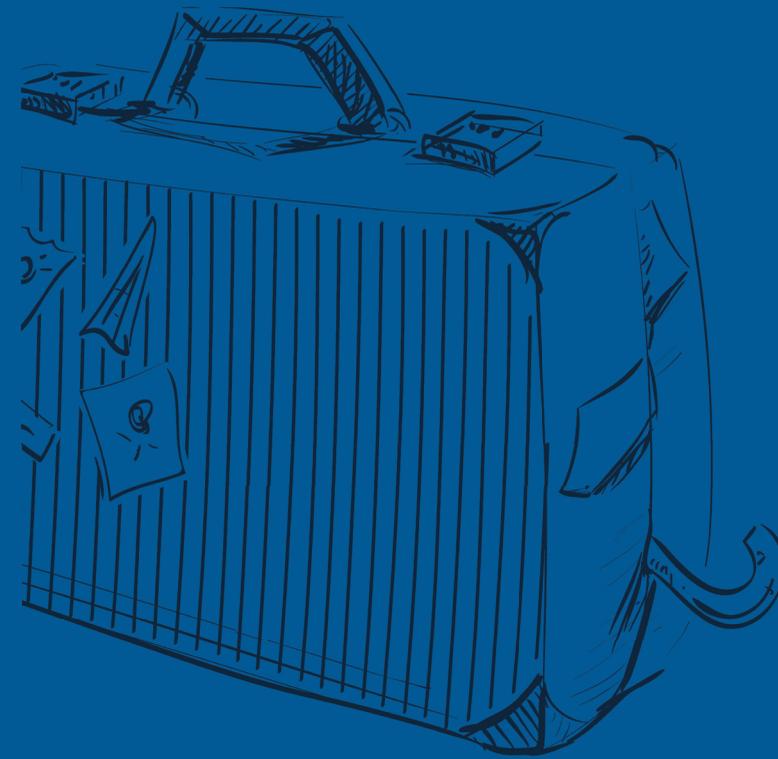
여름이 열리면 떠나세요.  
잘 알고 있다고 늘 착각하는 나를 두고,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 따위 내려두고.

# 그곳으로 떠나다

여름엔 떠나세요.  
잘 풀리지 않는 일로  
무거웠던 어깨를 기대세요.

왜 떠나는 것일까,  
누구와 함께 가면 좋을까,  
가서 나를 찾을 수 있을까란 고민보단

우선 시작은  
일단 '떠나는 것'입니다.



# 잠깐 멈추면 쪽 행복한 책방

## 여행책방 일단멈춤 송은정

작은 공간에 여행이라는 큰 세계를 담다  
회사와 집으로 반복된 일상을 보내다 보면  
지친 몸과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는다. 여러  
잔의 커피와 쪽잠으로도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들 땐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송은정 씨는  
국내에 단 한 곳 밖에 없는 여행책방을  
열었다.  
“책방 준비에 나름대로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책방 이름은 우연히 라디오를  
듣다가 떠올랐어요. 다른 일을 하고 있던 중  
DJ의 ‘일단 멈추고~’라는 말에 정말 동작을  
멈췄죠. ‘멈추다’라는 말이 주는 위안과

여유에 매료되어 책방 이름으로 따왔어요.”  
소소한 우연과 주인의 세심한 준비 끝에  
탄생한 ‘일단멈춤’. 여행에 관한 책은 물론  
가볍게 읽기 좋은 시집까지, 다양한 책이  
손님과 인연 맺기를 기다리고 있다.  
“여행지 정보만 있는 책보다는 여행 에세이  
위주로 입고시키고 있어요. 여행 관련 내용이  
아니어도 여행할 때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책도  
환영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시집을 추천해요.  
순서에 상관없이 읽어도 되고 같은 시라도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다르거든요.”  
이렇게 주인의 탁월한 안목과 정성스런  
손길을 거친 책들은 한쪽 벽면과 매장 가운데  
테이블에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다. 더불어  
실내 곳곳에 여행 풍경이 담긴 엽서, 노트,  
포스터를 비롯해 그녀가 직접 여행하면서  
수집한 기록물까지 비치되어 있으니  
구경하는 재미도 꽤 쏠쏠하다.

### 떠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들

지금은 책방 사장이지만, 그녀 역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남들처럼 출퇴근 도장을  
찍었던 직장인이었다. 착실히 경력 쌓고 더  
좋은 회사로 가는 것이 남들에겐 당연했지만  
그녀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 ‘내가 오롯이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의문이 든 것이다.

‘지금은 바쁘니 언젠가는 떠나야지’, ‘이 일 다 끝나고 읽어야지’. 흔히들 책과 여행을  
이런 식으로 미루곤 한다. 좋아하는 것들을 저만치 미뤄야만 하는 삶이 버겁다면,  
마포구 염리동으로 향해보자. 당신의 삶에 책 한 권, 여행 한 번의 심포 하나 찍어줄  
여행책방 ‘일단멈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바쁘고 답답한 일상속,  
잠간의 떠남으로 숨을 고르는 것.  
이것이 그녀가 말하고 싶은  
삶의 방식이다.

그러던 중 북아일랜드의 '캠프힐'이라는 장애인 공동체를 우연히 알게 됐고, 망설임도 없이 바로 짐 가방을 꾸렸다. "캠프힐에서 1년 여 동안의 생활이 제 가치관을 많이 바꿔놓았어요. 거기에선 주체적인 슬로우 라이프가 전혀 특별하지 않더라고요. 일상 그 자체랄까? 저녁 5~6시면 버스가 끝길 정도로 한적한 시골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자급자족해야 했거든요. 그들과 더불어 살며 음식을 만들고, 일하면서 시간은 좀 걸려도 마음은 훨씬 편했어요."

낮선 타국에서 느리게 사는 인생의 의미를 깨달은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건축 잡지 기자로 다시 사회생활을 했지만 업무가 개인 시간의 대부분을 잡아먹는 일상은 그녀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다. 슬로우 라이프를 추구하고 싶었던 그녀는 결국 여행책방을 열기로 마음먹었다. 좋아하는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책방, 그 중에서도 여행의 감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 이유였다. 에디터로서의 경력과 여행가로서 경험한 배움이 새로운 도전에 도움이 된 셈이었다. "글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여행도 하고 싶은 제 욕구를 충족시키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우스갯소리로 제 모든 욕망이 응축된 곳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지요(웃음). 이곳에



오시는 분들도 자신의 소망 하나씩은 챙겨 가셨으면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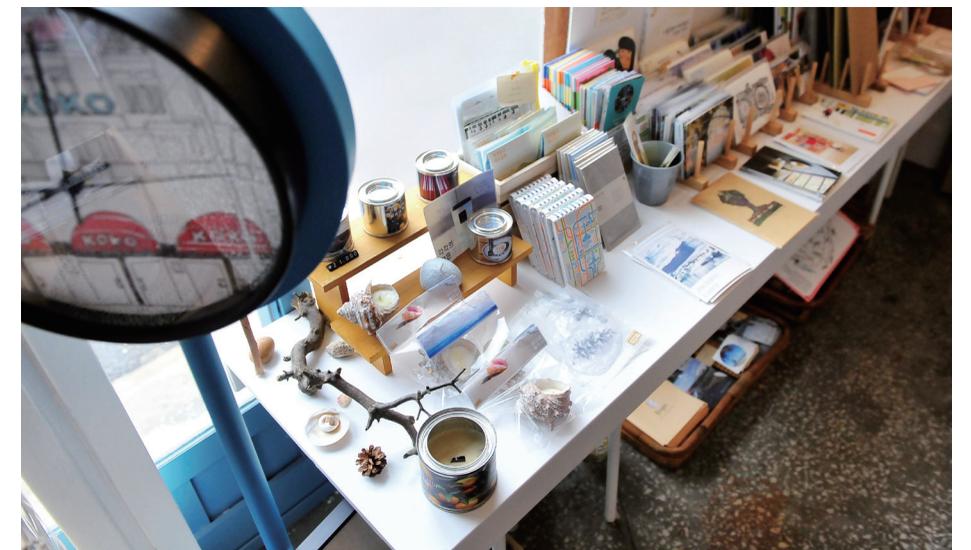
**'침표'라는 보물찾기**

송은정 씨는 최근 일본 오키나와로 여행을 떠났다. 잠깐 주변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껴서였다. 매장 관리와 세미나 등을 준비하다 보니 막상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가 쉽지 않았다. 여기에 순조롭게 운영해야 한다는 조급함까지 더해져 마음은 팍팍해졌다. 바쁘더라도 잠시 여유를 가지고 싶어 책방 이름처럼 본인부터 '일단멈춤'을 실천한 것. "오키나와에 도착하니 그곳의 햇살만으로도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이었어요. 회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치이다 보면 어제 같은



오늘이고, 오늘 같은 내일이 반복되기 쉽잖아요. 그럴 때 잠깐이라도 떠나면 멈추어 설 침표를 찍을 수 있죠. 꼭 퇴사를 하고 외국으로 떠나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자신이 사는 동네도 모르는 곳 투성이니까요. 제 경우만 해도 예쁜 소금길을 발견해 염리동에 책방을 열었거든요. 아직 주변에 모르는 곳이 많으니 조금씩 찾아보는 재미를 붙여보는 건 어떨까요?" 그녀는 잠시라도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일상 속 여행'을 중요히 여긴다. 의무적으로 뭘가를 해야 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크게

차지하는 하루가 반복되면 당연히 지치기 마련이다. 답답한 일상속, 잠간의 떠남으로 한곳만 좁게 보지 않고 넓게 여러 곳을 둘러보는 것, 그래서 잠시 숨을 고르는 것. 이것이 그녀가 말하고 싶은 삶의 방식이다. 여행 그리고 책을 통해 일상이 한층 더 반짝이길 바란다는 그녀의 마음이 오롯이 담겨, 평온하게 시간이 흘러가는 여행책방 '일단멈춤'. 이 특별한 책방은 오늘도 염리동 어느 골목 귀퉁이에 멈춰 서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 당신 그리고 우리의 침표를 위하여. 🇰🇷



극한 여행 마니아, 비박 달인 윤종볼 사우

# “힘들수록 가슴은 뜨거워 집니다”



직장인들의 일상이라고 하면 대체로 공감하는 바가 있다. 아무리 멋진 건물의 사무실일지언정, 아무리 현대화된 설비일지언정 평소 숨 쉬는 이 공간이 때론 무척 답답한 것이다. 양산 홍릉계곡 인근 캠핑장에서 만난 이번 코너의 주인공은 일상의 답답함에 파격적인 반전(?)을 꾀하는 자타공인 여행 마니아다. 우연히 시작한 백패킹으로 인생이 바뀐 한 남자, 화승소재 생산팀 윤종볼 사우의 인터뷰는 질문만 하면 “함께 해보실래?”가 꼭 돌아오더라.

### 조심하세요. 한번 빠지면 못 나옵니다!

대학시절부터 자칭 배낭여행의 달인이라며 큰소리치고 다녔던 필자지만 윤종불 사우의 목직한 백패킹 장비에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건장한 남정네가 들어도 “어이쿠!” 소리가 절로 나오는 무게의 가방 속엔 비박을 위한 장비들로 가득했다. 본래 비박의 의미는 자연에서 텐트를 사용하지 않고 지형지물 등을 이용해 하룻밤을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요즘에는 아웃도어 레저와 장비가 일반화되면서 백패킹과 결합된 소위 ‘극한 캠핑’ 정도라고 볼 수 있겠다.

처음엔 등산 정도로 시작했던 윤종불 사우의 취미는 시간이 지나면서 비박으로까지 발전했다고 한다. 무거운 배낭을 메고 땀 뻘뻘 흘려 산 정상에 올라가 텐트를 치고 하룻밤을 보낸 뒤 밝아오는 아침을 맞는 비박의 매력은 정말 해보지 않고는 절대 느낄 수 없다고.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는 필자의 말에 그가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경고한다. 비박의 매력에 중독을 조심하라며.

### 취미를 넘어 비박 덕후로, 인생을 바꾼 산행

일전에 화승그룹 홈페이지 인터뷰에서 그가 했던 말이 있다.

“산은 가장 완벽한 힐링센터이자 병원입니다.” 누구보다 건강에 자신 있었던 지난 2013년 여름,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릴 들었다. 바로 백혈병 진단을 받은 것. 이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작된 치료와 병상 생활은 그의 심신을 많이 지치게 했다. 조금씩 차도를 보이기 시작하자 그는 병상에서 일어나 산으로 향했다. 최대한 무리하지 않되, 치료기간 동안 쌓였던 피로와 권태를 떨쳐내고자 다시 시작한 산행이 조금씩 그의 얼굴을 환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얼마 뒤 그는 완치 판정을 받았다.



나에겐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정수기가 있지. 이걸로 산 정상에서 커피도 마실 수 있다고~



“사실 산을 오르면서 병이 나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산이 제게 긍정과 여유 그리고 기쁨을 선물해줬다는 것이죠.” 완치 판정 후 본격적인 비박 라이프가 시작되었다. 그는 아직 입문 수준이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에만 약 200만 원 이상을 들였다고 한다. 특히 아웃도어용 커피분쇄기와 흙탕물도 바로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신선하게 필터링 한다는 휴대용 정수기 등은 <DBT> 취재진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는 바로 즉석에서 휴대용 정수기로 물을 끌어올리더니 커피콩을 갈아 아메리카노를 내려 마셨다. 은근슬쩍 핫 아이템 자랑하는 비박 덕후의 흐뭇한 미소가 꽤 멋있어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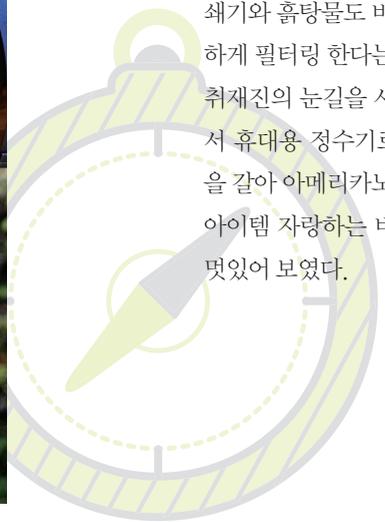


### 비박,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행복

현재 윤종불 사우는 사내 동호회 ‘우야노 산악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산행은 안전상 혼자보다 여럿이 활동하는 것을 추천하는데, 그는 조금 색다른 이유를 귀띔했다. 마음 맞는 사람끼리 땀 진탕 흘려 정상에 도착해 텐트 안에서 라면 몇 봉지 끓여 호호 불어먹고 소주 한 잔 딱 걸치면 행복이 더 커진다는 점(물론 과음은 절대 금물). 이렇게 여럿이 함께하는 재미 때문일까, 최근 비박 인구가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산 정상에 텐트를 칠 수 있도록 데크가 설치된 곳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 한 번쯤 경험해보고 싶지 않은가.

가끔 장비발 앞세운 비박인의 허세에 기가 죽기도 하지만 즐기자는 마음만 있으면 뭐가 문제 되겠느냐는 윤종불 사우의 행복한 한마디. 아직도 콧속을 맴도는 그의 건강한 유혹이 집 한구석에 박혀있을 배낭을 움짚거리게 만든다.

“어째, 비박 한번 같이 해보실래?”



# 여기가 거기 화승여지도

화승, 그룹 본사는 어디에 있나요? 그룹 사옥은 어디에 있어요?  
이런 많은 질문들을 받으며, 부산 연산동이라고 답한 지도 어언 십수 년.  
생각해보면 연산동 중앙대로 장천빌딩을 제대로 보여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준비했다. 화승그룹 사옥,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이름의 화승이 모여 있는  
빌딩, 장천빌딩. 그곳을 함께 돌며 화승여지도를 그려보자.



화승에 화승을 쌓으면,  
화승그룹이 됩니다.

12  
11



화승네트웍스  
종합무역상사의  
비전을 눈앞에!

화승그룹의 종합물류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화승네트웍스는 배태균 사장과 전 임직원들이 철강, 섬유, 일반무역에서 각종 원자재 통합구매 사업으로 글로벌 화승의 밝은 미래를 한층 앞당기고 있다. 11층엔 최요취 전무를 필두로 통합구매 1, 2팀과 섬유팀이 근무하며, 12층엔 김성희 관리담당 이사를 필두로 경리팀과 기획총무팀이 공존한다. 화승네트웍스는 미국, 베트남, 인도, 중국 등 해외법인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미래 먹거리의 신사업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세계적인 종합무역상사로의 도약을 기대한다.

8  
7



화승엑스월  
고무 산업용품의  
미래를 당기다!

장천빌딩엔 화승그룹의 고무소재의 산업용품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화승엑스월이 함께한다. 변수강 대표이사를 필두로 7층에는 김재경 상무, 홍승표 이사와 함께 벨트사업팀, 호스시트사업팀, 관리팀, 영업지원파트가 8층에는 송권우 이사와 함께 특수물사업팀, 기술개발팀, 품질경영팀이 화승엑스월의 미래를 견인하고 있다. 독보적인 기술과 유통을 보유하고 있는 화승엑스월은 고무 산업용품의 세계적인 기업이 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중이다.

6  
5



그룹 재무팀, 감사팀,  
홍보팀, (주)화승 재경팀  
그룹 비서팀, 교육팀  
그룹의 베이스캠프

그룹의 보안과 의전을 수행하는 비서팀, 사람이 행복한 화승을 만드는 교육팀, 화승을 널리 이롭게 알리는 홍보팀, 그룹의 살림꾼 재무팀, 투명한 그룹을 위한 감사팀까지 장천빌딩의 허리에는 그룹의 베이스캠프, 회장실이 자리하고 있다.

### 화승 사람들도 잘 모르는 장천빌딩 이야기



2층 로비 신발관

무릇 화승의 근본은 신발이려다! 그간의 역사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신발을 오롯이 모아놓은 작은 신발관 속엔 화승의 신발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자신에게 맞고, 편한 신발이 당대 최고의 신발이었음을 담은 이 작은 터에서 화승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만나볼 수 있다.



4층 대강당

화승의 크고 작은 행사를 함께하는 공간, 모두에게 열린 공간, 대강당이다. 독서 토론부터 꿈을 프로젝트 발대식, 그룹 교육까지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는 대강당은 회장실 교육팀 김경우 사원에게 대관 협조를 구하면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다.



4층 홍보팀 기록보관실

그룹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록보관실. 모든 자료를 데이터화했지만 오랬수록 더 뜻깊은 자료들은 그대로 그 자리에 보존되어 있다. 꺼내볼수록 생생한 그 시절의 흔적들.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려주는 화승이다.



13층 화승네트웍스 문서보관실

차곡차곡 세월을 쌓듯 질서 정연한 화승네트웍스의 문서보관실. 한때 장천빌딩의 직원 매점이었다던 그곳이 이토록 훌륭하게 탈바꿈했다. 필요한 책을 바로 꺼내볼 수 있는 도서관 같아 편리할 뿐만 아니라 정겹기까지 하다.

### 화승맛거리

연산동 화승 근처에 먹을 만한 곳 좀 추천해 달라는 부탁을 수도 없이 들었다. 그때마다 버릇처럼 블로그를 검색하기 일쑤. 연산동 장천빌딩 근처에 알려주고도 군소리 안들을 자신 있는 맛집을 콕 찍어본다.



제대로 된 고래고기  
백경



저렴하고 맛있는 한우  
선정한우



이런 짜장면도 있다!  
중화요리 북경



매일 줄서는 시골통돼지김치  
시골통돼지볶음



가성비 최고  
동산초밥



화승표 커피  
엘레아커피



푸짐한 정이 더 맛있는  
시골추어탕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가격 990원  
커피볶는 바리스타

# 천년의 신라! 도전하라 和承!

이름만으로도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곳, 경주에 화승인이 모였다. 그룹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된 소통하는 기업문화 형성을 위한 '소통역량 과정'이 천년 역사의 도시 경주에서 진행된 것. 신라인들의 국가 경영의 지혜와 당시 신라인의 삶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통해 화승을 위한 비전 찾기 등 통일신라의 모든 것을 파헤치겠다고 모인 화승인들은 어느새 신라인들의 유구한 역사를 보고 듣고 느끼고 있었다.

## 신라의 재발견

단 한 번도 통일신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심지어 수능시험을 치는 당일에도 궁금하지 않았으니 말이다. 그런데 철이 든 것일까? 아니면 고등학교 시절보다 이해력이 높아진 것일까? 이 교육, 신선하고 재밌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통일신라의 역사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어떻게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역사와 전통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 라는 의문을 가차 없이 해결해주고 덤으로 새로운 지식도 선사했다. 고등학교 농땡이 시절에 들어봤을 법한 선양제도니 화랑도니 하는 것들이 신라 통일의 원천이 되었다는 정형진 강사의 설명에 다들 이제야 아! 하며 무릎을 친다. 당시 신라인의 포용성과 글로벌 마인드, 그리고 리더들의 술선수범 정신과 창조성은 화승이 지향하는 것과도 많이 닮아 있었다. 모두가 원했던 국가 재건의 원천들이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게 되었다.

“화백제도가 무엇이더냐”  
“신라인들의 만장일치 합의제이옵니다.”  
“그렇다면 골품제도는 또 무엇이더냐?”  
“왕족과 일반백성을 구분하는 신라의 계급 제도이옵니다.”  
“오호~ 자네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제 이름은... 和承 이라 하옵니다.”





### 신라인들의 지혜

이론 수업을 마치고 신라 역사과학관으로 향했다. 옛 서라벌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당시로서는 꽤 많았던 20~30만 인구, 잘 정돈된 구획, 농경생활에도 최적화되었던 경주는 신라 왕조가 992년 동안 장수한 곳이다. 지중해 실크로드를 따라 아랍인들과 무역을 했던 신라의 글로벌 마인드는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당시 문화에 센세이션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듯 보였다. 그 오래전 지금과 같은 투명한 유리잔이라니. 국제 정세를 잘 이해하고 현실 조건을 활용한 신라인의 지혜다. 하늘 위에 펼쳐진 별자리 밑의 첨성대, 세계 유산에 등재된 불국사와 영국의 찰스 왕세자마저 감동시킨 세계 유산 석굴암을 보노라니 그 당시 신라인들의 삶과 지혜에 가슴이 먹먹해진다. 우리 민족과 역사 속 지혜의 감동이 타종소리처럼 마음 깊이 은은하게 울린다.

### 천년의 신라, 63년의 화승

그렇다면 과연, 천년 신라와 화승 63년 원동력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신라에서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사람이 왕위에 오르는 선양제도를 실시했던 것처럼 화승 역시 인화를 바탕으로 한 능력 중심, 인재 중심의 경영을 펼친 것이다. 모두가 평등하고, 사람을 중시한 것

이 화승이 뿌리 깊은 나무처럼 오랜 시간 건설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신라가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를 운영했던 것처럼 화승 역시 그러하다. 소비자와의 소통을 통해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며 기술 개발에 있어서도 모두가 만족하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수직과 수평이 조화로운 조직구조와 자유롭게 업무를 즐기는 환경에서는 계층 간 불평 불만과 투쟁을 줄일 수 있으며, 창의력 극대화라는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다. 63년 역사 화승의 원동력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 화승의 미래

천년의 신라와 현재의 화승, 더 나아가 화승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천 피스의 도미노로 화승의 미래를 염원하는 탐을 쌓기로 했다. 조원들은 기초부터 디자인, 탑 구조 등 모든 것을 협업하며 탐을 하나하나 쌓았다. 모두 한마음으로 미래의 화승을 그리고 있었다. 기본을 튼튼히 하고, 원칙을 준수하는 화

승, 투명한 경영을 통해 모두가 행복해지길 위해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화승은 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될 것이다. 꿈을 위해 도전하고 그 꿈을 실현해 나가는 우리들의 염원처럼, 오랜 시간 굳건한 의지로 삼국을 통일했던 신라처럼, 힘찬 비상으로 끝없이 뻗어가는 화승을 만들기 위해 화승인들은 오늘도 쉬지 않고 달린다.🇰🇷

신라와 화승이 뿌리 깊은 나무처럼 오랜 시간 건설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화를 바탕으로 한 문화 덕분이다.



카메라 앵글에 담은 한국 속 사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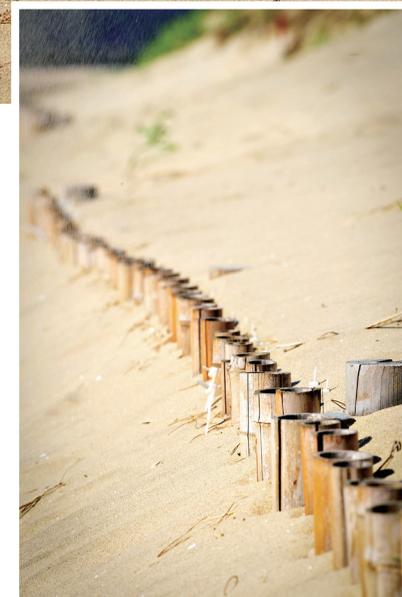
# 뜨겁고도 시원한 여행지 충남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초록빛 이파리로 가득 물드는 대한민국의 여름. 더위 피할 시원한 여행지를 찾다 조금 특이한 곳이 존재한다는 제보에 <DBT> 여행단이 한걸음에 충남 태안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이게 무슨. 그들은커녕 온통 누런 모래만 가득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카메라 위치를 살짝 바꾸었더니 이걸 뭐 영락없는 황사의 고향, 입이 짹짹 마르는 사막 그 자체다.



### 국내 최대의 모래언덕을 경험해보라!

태안은 바다로 유명하지 않던가. 해안사구라기에 바닷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래사장 정도로 생각했건만, 정말 사막처럼 펼쳐진 어마어마한 모래 양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실제로 사막이라기보단 엄청난 모래언덕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듯하다. 신두리 해안사구는 천연기념물 제431호로 지정된 국내 최대의 모래언덕으로, 해안선을 따라 길이 약 3.4km, 폭 약 0.2~1.3km의 규모로 형성되어 있다. 해안사구는 바람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독특한 경관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대륙과 해양생태계의 중간에 위치해 두 생태계를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한다. 특히 신두리 해안사구는 사구만의 지형과 식생이 잘 보전되어 있다. 작은 송림과 억새밭, 습지 등도 함께 즐길 수 있어 굳이 여름이 아니더라도 신두리 해안사구만의 매력은 사계절 유효하니 참고하길.



###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다양한 동식물

해안사구는 강한 해풍과 높은 염도, 강한 햇빛 등 동식물이 살아가는데 어려운 환경이다. 하지만 지하수가 풍부해 육지에서 사라져 가는 금개구리, 맹꽁이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해안사구가 아니면 찾아볼 수 없는 해당화, 순비기나무, 갯방풍 등의 식물도 쉽게 눈에 띈다. 뿐만 아니라 해안사구 뒤쪽으로는 태안 두웅습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조류 39종, 양서류 14종, 식물 311종, 곤충 110종 등이 살고 있어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다.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07년 람사르습지로 지정, 철저히 관리 중이다. 자세한 이야기는 신두리 해안사구 입구에 위치한 사구센터에서 체험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습지를 동시에 경험하고, 해안 송림 등 관람데크를 걸으며 마음껏 생태탐방을 할 수 있는 신두리 해안



사구. 호기심 가득한 아이들과 함께하기에도 안성맞춤인 여행지가 아닐까 싶다.

### 이색적인 풍경을 담고 싶다면 신두리 해안사구로!

당신의 앨범 속 온갖 사진 중 산과 바다는 있어도 사막은 없지 아니한가. 굳이 좋은 카메라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것 마냥 이국적인 풍경을 담을 수 있는 것이 이곳의 특징이다. 또한 물때를 맞춰 나가면 드넓게 펼쳐진 갯벌도 볼 수 있다. 얇은 바닷물 출렁출렁 밟아가며 손잡고 뛰어가는 연인들의 모습이 절로 상상되는 아름다운 해안의 모습은 소장 가치 100%. 산과 계곡, 바닷가는 이미 충분히 다녀왔다면 올해는 신선한 경험으로 기억될 신두리 해안사구로의 여행을 적극 추천한다. 🇰🇷🇸🇰

4인 4색

# 여행 가방을 엿보다

여행에도 스타일이 있다. '먹방'에 열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진 촬영을 위해 하루에도 열두 번 옷을 갈아입는 사람도 있다. 또 최소한의 짐만 꾸러 가벼운 차림으로 도보를 즐기는 이도 있을 것이다. 어떤 스타일의 여행을 즐기느냐에 따라 여행 가방 속 아이템이 달라진다. 화승인 4명에게 당장 여행 떠날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이 어떤 스타일의 여행을 즐기는지 여행 가방 속 아이템으로 가능해보자.

## 화승네트웍스 경리팀 김빈규 사원

**1 와인 오프너** 여러모로 쓸 일이 많다. **2 향수 공병** 무거운 향수병을 들고 다닐 순 없지 않나. 향기로운 시간을 위한 나의 여행 메이트. **3 수건** 여름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다. 계곡이든 바다든 차 몰고 가다가 물이 보이면 언제라도 뛰어들 수 있다. **4 비상구급약** 평일도 아닌 휴가 때 이쁠 순 없다. 대학생 때 여행지에서 갑작스런 열감기로 인해 응급실에 실려 간 후로 비상구급약은 내 여행에 있어 '머스트해브 아이템'이 되었다. **5 화장품 샘플** 화장품 구매 시 점원 누나에게 부탁해 차곡차곡 모은 것들이 여행 때 아주 요긴하다. 먹는 것만큼 중요하다. **6 안대** 목적지로 이동하는 시간, 편안한 휴식을 위한 여행 필수품이다. 잠에서 깬 후, 안대를 벗었을 때 맞이하는 여행지의 광명은 정말 눈부시지 ㅋㅋ **7 캐리어** 어깨 가득 짊어진 배낭이 싫어서 구매했다. 나름 뉴요커 분위기를 풍기며 공항 바닥을 미끄러지듯 다니기에 안성맞춤이다.



## 화승엑스월 관리팀 박유림 사원

**1 래쉬가드** 선크림을 딱칠한다 한들, 뜨거운 태양을 거스를 순 없다. UPF50+로 자외선 99% 차단에 도전하자. **2 호신용 스프레이** 아직 써보질 않아서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평생 쓸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3 파스** 벌레나 모기에 물렸을 때뿐만 아니라 근육통에도 효과가 좋다. **4 매니큐어** 여행 중에 꼭 손톱이 하나 정도는 망가져 있더라. 여행 가서도 손 끝의 아름다움은 포기할 수 없다. **5 비치 모자** 소셜사이트에서 구매했다. 햇볕이 잘 가려지지도 않고, 실용성도 없고, 공간만 차지하는 오직 사진 촬영용 모자. **6 아쿠아 슈즈** 물속에서 안전과 편리함을 책임져주는 아이템. 어렸을 땐 파도에 떠내려가는 슬리퍼를 바라만 보곤 했었는데. **7 마스크팩** 종일 땀별 아래서 수고한 내 피부에게 주는 선물! **8 비키니** 머릿속 상상 다이어트만 365일 하고 있다. 이번에도 귀여운(?) 나의 속살을 가릴 비치웨어를 구입해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슬프지? **9 캐리어** 고등학교 시절, 갑자기 잡힌 여행 일정 탓에 샀다. 눈물을 머금고 돼지저금통을 깨서 산 가방이지만, 수년이 흐른 지금도 유용하게 잘 쓰고 있으니 뿌듯하다. **10 비치 원피스** 2년 전, 백화점에서 큰 맘 먹고 구입했다. 비치 원피스, 언제 입어보려나. **11 선글라스** 안구도 보호되고, 패션의 완성도를 높여준다.



**화승인더스트리 물류팀 조현길 팀장**

1 유리구슬 점성술 용도가 아니라 촬영 소품이다. 일반 렌즈와는 또 다른 시각으로 촬영할 수 있다. 2 Nikon D4s 촬영대회에서 받은 상금과 꼬깃꼬깃 모은 용돈으로 구매한 바디. 소중한 만큼 여행자 물품 보험에도 가입했다. 3, 7 파우치와 필름 화장품이 아니라 필름 보관용. 4 Nikon SB-600 스피드라이트 선배가 부산국제시장에서 구매한 제품. 사용할 때마다 의성군의 소외계층 노인 장수(영전) 촬영이 생각나곤 한다. 5 Nikon 70-200mm f2.8(망원렌즈) 집사람은 아직도 이 렌즈에 얽힌 사연에 대해 모른다. 화승 입사 15년 되던 해 회사에서 준 상금과 비상금을 보태 구매했다. 출사 때 풍경사진 촬영 시 없어서는 안 되는 렌즈. 6 수첩과 엽서 풍경 좋은 여행지에서 글을 쓰고 엽서를 보내기도 한다. 8 모자와 슬리퍼 내리 짚는 햇볕 사이로 촬영 시 모자와 슬리퍼는 필수. 9 Nikon 105mm Micro f2.8(접사렌즈) 지금이야 저렴해졌지만 당시엔 1년 적금을 부어 마련했다. 내겐 아직도 명불허전이다. 10 Nikon 14-24mm f2.8(광각렌즈) 이 렌즈 역시 집사람은 모른다. 친구들과의 계모임에서 30주년 해외여행을 목표로 매월 10만 원씩 냈는데, 해외여행이 미뤄졌다. 그래서 대신 이 렌즈를 구입했지. 포괄적인 화각으로 공연장이나 행사장에서 이름값을 한다. 11 Nikon 24-70mm f2.8(표준 줌 렌즈) 필름카메라 사용 시절부터 함께 오랫동안 사용한 렌즈. 12 Nikon F5 니콘의 마지막 필름카메라. 현재는 정말 마니아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다. 나는 기다림의 아름다운 미학을 느낄 수 있는 필카가 여전히 좋다. 13 라이트 야간에도 촬영 장소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다. 14 삼각대 카본 재질로 가벼워서 좋다.



**화승R&A 해외영업1팀 최향민 대리**

1 여행견적보고서 사내에서 사용하는 GM 견적서를 활용한 여행견적서. 해외영업팀 워크숍 갔을 때 견적서를 작성했다. 털털한 나에게서 유일하게 꼼꼼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 2 노트와 펜 대학생 때 생일선물로 받았다. 들고 다니며 일기나 좋은 글귀를 써보기도 한다. 3 화장품과 샴푸 샴푸 & 헤어 에센스 정품을 사면 붙어있는 샘플. 그리고 찰랑거리는 머릿결을 유지해주는 헤어에센스. 내 피부와 머리카락은 소중한니깐. 4 약과 해외여행 땀 한국과자를 준비해간다. 외국인 친구들 만나면 주려고, 개네들 입맛에 맞으려나 모르겠네. 5 위생면봉과 빗 호텔 어메니티는 가끔 가져오기도 한다. ^^; 6 고무줄 세안할 때 없으면 매우 불편하다. 7 책 여행 중 머리를 식히기에 좋다. 8 안대 글로벌자원팀 윤주선 팀장님이 일본 출장에서 사다 주신 안대. 9 비타민 C 건강보다는 피부미용을 위해 여행지에서도 매일 챙겨먹는다. 먹지 말고 피부에게 양보하라고? 쳇, 피부를 위해 먹는다! 10 케이스위스 가방 입사 후 첫 생일 때 부서 언니가 선물해준 가방. 내 여행 철칙은 최소한의 짐이기 때문에 이 배낭 하나면 충분하다. 난 영원히 너와 함께할 거야. 11 비닐 하찮아 보이지만 존재감은 실로 대단하다. 각종 옷가지부터 여행 관련 전반적인 모~든 물품을 담을 수 있다. 특히 먹고 남은 음식을 버리기 아까워 가끔 비닐봉투에 담아두면 여행 중 배고플 때마다 언제든지 꺼내 먹을 수 있다. 12 셀카봉 주로 혼자 여행을 하는 내겐 필수다. 소심해서 매번 남들한테 찍어달라고 하기 미안해서 결국 구매했다. 21세기 최고의 발명품이라 생각한다. 13 파자마 상의는 외출복과 공용, 하의는 가볍고 구김이 가도 상관없는 걸로. 사실 화려한 색상과 무늬에 반해 똑같은 거 몇 개 더 샀다. 14 파우치 화장품 사면서 엄마랑 커플로 받은 파우치. 화장품과 세면도구를 넣어 다니기에 이보다 좋은 것이 없다. 🇰🇷🇺🇸



14

요리로 떠나는 해외여행

# 부산&서울 숨은 세계 음식 맛집

여행을 떠나는 이유 중 빠질 수 없는 그것, 바로 먹는 즐거움이다. 오랜만에 캐리어 한가득 옷 잔뜩 싸매고, 지갑 두둑하게 환전해 해외여행 떠나고 싶지만 통장 빈털 사태로 선뜻 비행기표 구매하기가 쉽지 않은 당신. 지금 당장 떠나지 못해 아쉬워하는 당신을 위해 준비한 '마치 해외여행을 온 것 같은' 현지 음식 체험! 절대 제작비 때문에 얹어진 해외여행 코너의 대체가 아님을 먼저 밝힌다. 하지만 눈물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네.

익숙한 베트남 요리에서 찾은 진짜 베트남의 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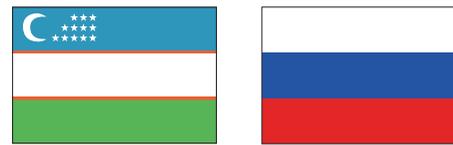


투히엔

월남쌈, 쌀국수 등 듣기만 해도 익숙한 맛이 떠오르는 베트남 요리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정통' 베트남 요리를 선보인다는 투히엔. 부산 사상 덕포동에 위치한 이곳은 한국인의 입맛에 개량된 베트남 요리가 아닌 현지식 요리로 이미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다. 먼저 대표적인 베트남 요리인 쌀국수를 먹어보니, 우리가 흔히 먹는 베트남식 쌀국수의 육수와는 뭔가 달랐다. 열다섯 가지 한약재로 14시간 이상 푹 고아 특유의 향을 듬뿍 머금은 육수로, 어느 베트남 쌀국수보다 훨씬 깊고 진한 맛을 낸다. 특히 사장님이 베트남 현지에서 직접 공수해온 향신료와 잘 어울려져 식욕을 자극한다. 쌀국수 외에 처음 보는 요리도 많다. 달걀에 볶은 닭고기, 새우, 채소 등을 곁들여 먹는 베트남식 크레페 '반세오', 베트남 채소인 라우무엉을 볶아 만든 '베트남 야채볶음' 등 대부분의 요리들이 독특한 식감과 맛을 내지만 생각보다 한국사람 입맛에 잘 맞는다. 털털하고 경상도 사투리 맛깔나게 싸주시는 가게 사장님 막투히엔씨는 베트남 출신으로 현재 한국인 남편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위치 부산 지하철 2호선 덕포역 2번 출구 인근 문의 051-301-8623



부산역 건너편에 위치한 외국인 거리에서는 다양한 외국 문물을 접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우즈베키스탄 & 러시아식 음식점 우초쿠дук. 아직은 다소 생소한 문화권이다 보니 대부분의 손님은 한국인이 아닌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현지인들이다. 처음 맛보는 나라의 요리인 만큼 먼저 러시아 대표 요리로 손꼽히는 보르쉬를 주문했다. 익숙치 않은 선홍빛깔의 보르쉬는 쇠고기, 토마토, 양파, 비트, 감자 등을 푹 끓여 만든 스프다. 낯선 비주얼이지만 한입 먹어보면 고기와 채소의 깊고 진한 국물 맛이 입맛을 확 돋운다. 사장님은 보르쉬가 현지인들이 즐겨먹는 일상 음식이자 일종의 해장국이라고 한다. 이어 나온 요리는 카잔 케밥. 폭 삶아 부드러워진 양갈비를 한 번 더 구워 감자, 양파 등과 곁들여 먹는데, 푸짐한 양에 비해 무척 저렴한 가격이 눈길을 끌었다. 뿐만 아니라 특유의 향신료로 잡내를 잡은 양고기 꼬치, 등심등성 큰 고깃덩이가 들어간 우즈베키스탄식 볶음밥 뽕뽕 또한 이국적인 향을 내뿜으며 색다른 맛을 낸다. 주말에는 '탄두르'라고 불리는 항아리 형태의 오븐에서 빵을 굽는데 이 또한 별미란다. 우초쿠дук은 1·2호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1호점은 우즈베키스탄 요리전문점, 2호점은 러시아 & 우즈베키스탄 요리전문점이니 참고하길.

위치 부산 지하철 1호선 부산역 5번 출구 차이나타운 거리 내 문의 051-441-8503

의외의 경험, 우즈베키스탄 + 러시아의 맛



우초쿠дук 2호점



서울에서 깨어난 잉카의 향,  
페루의 맛



쿠스코



최근 방영된 <꽃보다 청춘>에서 페루를 여행하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잉카문명으로도 유명한 페루의 관광지는 물론 현지 요리들이 시청자의 호기심을 잔뜩 유발 시켰는데, 대한민국 서울에서도 페루식 요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다길래 직접 찾아갔다. 서울 합정동의 쿠스코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페루 요리 전문점으로, 페루인 셰프가 직접 요리해 현지식에 가까운 음식을 맛볼 수 있다. 가게 내부는 페루를 상징하는 소품과 벽화로 꾸며져 페루 특유의 이색적인 분위기를 마음껏 느낄 수 있어 주인장의 페루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쿠스코 주인장이 강력 추천하는 메뉴는 TV에서도 소개된 페루 전통 음식인 '세비체'. 일종의 해산물 샐러드라고 할 수 있는 세비체는 신선한 광어회와 함께 채소를 시큼한 소스에 버무려 먹는다. '호랑이 우유'라고도 불린다는 세비체 소스는 레몬즙에 양파, 고수 등을 다져 넣어 향과 맛이 매우 강한 것이 특징인데 페루에서는 숙취 해소용으로도 인기가 많다고 한다. 함께 주문한 안데스 감자 크로켓은 삶아 으갠 감자를 만두피처럼 사용해 소고기와 야채, 계란 등으로 속을 채워 나오는데 달달한 잉카 콜라와 잘 맞는다. 페루 안데스 지역의 토속 음식인 앙고기(혹은 닭고기) 돌판찜은 페루 전통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쿠스코의 대표 메뉴로 우리 입맛에도 잘 맞는다.



위치 서울 지하철 2·6호선 합정역 6번 출구 인근  
문의 02-334-6836



포르투갈 음식은 보기엔 투박하지만 재료의 특징을 잘 살린 자연스러운 맛이 있다. 게다가 유럽에서 쌀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인 덕분에 한국사람 입맛에 여느 서양음식보다 더 잘 맞는 편. 젊음의 거리인 홍대에 위치한 타버나드 포르투갈은 국내 최초의 포르투갈 음식점이다. 포르투갈인 셰프 남편과 한국인 부부가 운영하는 곳으로 한국사람 입맛에 꼭 맞는 음식을 선보이며 입소문이 나 연일 만석이다. 이곳의 대표 메뉴는 포르투갈의 전통 샌드위치인 '프란세지냐'와 우리나라 바비큐 치킨과 비슷한 '피리피리 그릴치킨'. 흘러내린 치즈로 꽂꽂 싸맨 프란세지냐를 반으로 가르면 훈제 염장 돼지고기 소시지와 생소시지, 햄, 구운 고기가 겹겹이 쌓여있는 감동적인 자태가 드러난다. 이를 다양한 술과 토마토 베이스를 섞어 만든 소스에 찍어 먹으면 새콤달콤하면서도 씹쓸한 뒷맛이 풍미를 한껏 돋운다. 피리피리 그릴치킨의 '피리피리'는 포르투갈어로 고추라는 뜻으로 치킨에 고추로 만든 소스를 발라 오븐에 구워낸 음식이다. 여기에 포르투갈 맥주 슈퍼복 한 잔을 곁들이면 그야말로 환상적인 치맥 조합이다. 포트와인도 꽤 준비되어 있으니 근사한 금요일 밤의 디너 메뉴로 딱 좋을 것 같다.🇵🇹

위치 서울 지하철 6호선 상수역 극동방송 인근  
문의 02-3144-4819



한국인 입맛에도 딱!  
포르투갈 음식의 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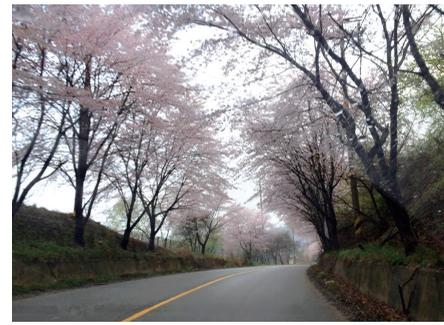
타버나드 포르투갈





# 익숙한 풍경 낯설게 보기

무념무상. 터벅터벅 걸어 다니는 익숙한 길. 이미 내 눈엔 더 새로울 것도 신기할 것도 없다. 하지만 그저 그랬던 어제의 출퇴근길을 오늘은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기로 했다. 같은 하늘, 같은 지하철, 같은 꽃... 늘 봐왔던 익숙한 풍경이 오늘따라 낯설고 새롭다.



## 화승인더스트리 경리팀

어지훈 매니저

출근길에 찍은 아산시 음봉면의 벚꽃길 사진입니다. 뭐가 그리 바빴는지 머릿속으로만 봄을 상상하다 오늘에야 비로소 제 마음에도 봄이 왔음을 느끼네요.



## 화승엑스월 특수물해외영업파트 유민준 사원

출퇴근할 때 매일 이용하는 부산 지하철 중앙역입니다. 역 안에는 작은 서점이 있지요. 주인 할아버지는 행여나 책에 먼지라도 쌓일까 부지런히 매장을 관리하십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온 출근길에 '어머니의 김치'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한줄 한줄 읽으며 바쁘다는 핑계로 잠시 잊고 있었던 어머니에 대해 고마움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 화승인더스트리 영업팀

임강원 매니저

땀 뚫려서 늘 기분 좋게 다니던 도로인데... 어떤 일인지 오늘 퇴근길에는 꼭 막히네요. 그녀가 홀로 기다리고 있던 생각에 마음만 조금해집니다.



**화승R&A 설비지원팀 김지은** 사원

출퇴근길 항상 백조다리를 건너요. 오가던 다리 위에서 저물어가는 해와 바빠 움직이는 수많은 차를 보니 드라마 <미생>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으로 '오늘도 수고했어, 내일도 힘내자!'라고 저 자신에게 용기를 준 하루였습니다.



**화승소재 해외영업팀 정순우** 사원

제게 출근길은 짧은 여행의 시작입니다. 언덕에 피어나는 꽃을 바라보며 잠시나마 봄을 즐기고 사무실로 힘차게 향하죠. 바쁜 하루가 지나고 곧 밤이 오면 저는 또 다른 짧은 여행을 떠나기 위해 다시 출근했던 길로 퇴근을 준비합니다.



**화승소재 공정혁신팀**

**고경훈** 사원

양산으로 이사 온 지 녁 달, 용돈을 조금씩 모아 구매한 자전거로 출퇴근한 지 한 달째입니다. 자전거 덕분에 차를 타면 경험하기 어려운 아침의 상쾌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저의 근무지이자 거주지인 양산의 신선한 아침, 한번 느껴보시겠어요?



**화승엑스월 호스시트사업 2팀**

**변성화** 사원

이리저리 치이는 출근길, 버스 타기에만 급급했는데 정류장 한쪽에 수줍게 핀 꽃을 발견했습니다. 무심코 지나치려다 꽃을 바라본 순간, 꽃이 나에게 다가왔다는 기분이 들 정도로 설레었어요. 제 기분만큼이나 세상 또한 아름다워 보이네요.

**화승인더스트리 총무팀**

**김연식** 매니저

아산공장 도착 5분 전, 총무로에서 볼 수 있는 봉채 저수지입니다. 탁 트인 경치를 보니 제 마음도 상쾌해지네요. 오늘은 저수지처럼 넓은 마음으로 긍정적인 하루를 보내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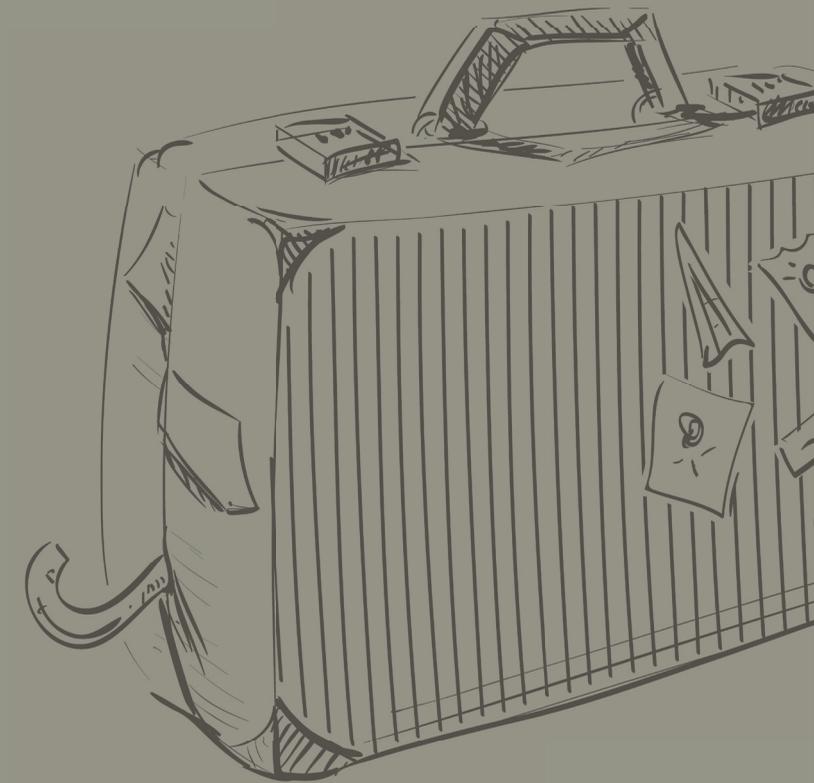


# 그 사람을 떠나다

삶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이별과 상실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익숙한 장소가 사라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며,  
심지어 하루 전의 자신과도 이별합니다.

누구에게나 익숙한 것으로부터  
이별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잘 떠나보내고,  
잘 떠난 후  
삶은 더 풍부해지고  
단단해집니다.



D.L 연애조작단 이대로 대표

# 연애도 공부가 필요해!

애인과 헤어진 후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진탕 마신 술에 쓰러져 잠들고, 친구 잡고 울며불며 하소연한들 이미 떠난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이들에게 사랑을 되찾아주고, 솔로 탈출하고 싶은 이들에게 인연을 만들어주는 D.L 연애조작단의 이대로 대표를 만났다.



## 당신이 상상하던 연애, 현실로 이뤄드립니다

영화 <시라노 연애조작단>의 '시라노 에이전시'는 연애가 서툰 사람들의 사랑을 이뤄주는 연애 전문가 집단이다. 그들은 의뢰인과 타겟의 성향을 속속들이 파악해 짠 치밀하고 완벽한 각본으로 그 둘을 연인 사이로 발전시킨다. 이 영화에서나 볼 법한 조직이 실제로 존재한다! 이름하여 D.L 연애조작단. 이들이 연애 하수들을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구출한 지도 벌써 7년째다. 사랑은 원래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것 아니냐고? 그래서 망하는 거다. 이들은 '연애에도 공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많은 사람이 리더십, 대인관계 기술을 공부해요. 그런데 왜 연애를 배우는 건 꺼릴까요?" 아마도 우리는 연애를 '감정'에 충실해야 하는 문제라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자. 우리가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그 사랑의 감정도 본질적으로 파고들면 결국 '니즈'와 마주하게 된다. 아무 이유 없이 누군



가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나에게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대로 대표는 이 가치가 '마음의 끌림'과 관련 있다고 했다. 마음의 끌림은 논리적인 머리의 끌림과 달리 본능적인 것이라 스스로 제어하기 힘들다고. 머리로는 백 번 아닌데 자꾸 마음이 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타겟의 이런 마음의 끌림을 극대화시키는 것, 이게 D.L 연애조작단의 임무 중 하나다.

D.L 연애조작단은 크게 세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헤어진 연인과의 재회를 원하는 사람을 위한 R프로젝트, 짝사랑을 성공시키고 싶은 사람을 위한 C프로젝트, 이상적인 연인을 만들고 싶은 사람을 위한 P프로젝트다.

## 진심만 다하면 된다고? 아니 아니!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듣다 보니 이거,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신기하다. 연애를 원하는 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P프로젝트는 기본적인 연애 강의에 더해 자체 브랜드 파티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진솔한 만남을 추천한다. 반대로 정해진 대상이 있는 R프로젝트와 C프로젝트는 의뢰인과 타겟에 대한 충분한 분석으로 시작된다. 타겟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어떤 접근 방식이 효율적인지 파악해야 하니까.

모든 프로젝트의 첫 단계는 의뢰인 마인드 다지기! 사랑에 푹 빠져있는 의뢰인의 시야는 마치 경주마 같아서 타겟에만 집중돼 있단다. 집착이 심해지면 역효과가 나는 건 당연지사. 의뢰인을 도와준답시고 범죄자를 키울 순 없지 않겠느냐며 이 대표가 말을 이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많이 주는 것과 스토킹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조금만 넘쳐도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우선 의뢰인이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 시선과 신경을 분산시킵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바닥까지 떨어진 자존감도 회복시키고요."



세 프로젝트 중 가장 많은 의뢰를 받는 것은 단연 R프로젝트다. 연애하는 사람 중 원치 않는 이별을 통보받은 사람만큼 절실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눈물로 밤을 지새우다 마지막 수단으로 D.L 연애조작단의 문을 두드리는 이도 많단다.

“이별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진심을 담아 편지 쓰고 그때부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래놓고 ‘왜 질 알아주지 않을까요?’ 하십니다. 그렇게 하니깐 안 되는 거거든요.” 하... 문득 아팠던 지난날이 떠오르지 않는가. 헤어지고 아무리 잘한다 한들 상대를 더 질리게 할 뿐이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의뢰인의 매력치 변화와 타깃의 인식 변화다. 의뢰인이 전문가에게 상담과 교육을 받는 사이 다른 전문가들은 타깃 공략에 들어간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접촉한 후, 알게 모르게 의뢰인에 대한 결핍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연기자가 투입되기도 하고 생각보다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기도 하지만 성공 확률은 높다. D.L 연애조작단의 손길에 연인을 ‘버렸다’는 타깃의 생각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 ‘잃어버렸다’는 개념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이 다시 마주쳤을 때, 의뢰인은 구차하게 매달리는 대신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어필한다. 동공이 흔들리던 타깃이 마침내 그 마음을 받아들이면 프로젝트는 해피엔딩으로 종료.

전문가의 도움으로 사랑을 쟁취했어도 이 대표가 가장 중시하는 건 자립적 연애다. 상황에 따른 행동 방법을 가르치는 대신 의뢰인의 매력을 끌어올리고 심리적·윤리적 조언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연애 방법을 제시하는 게 키포인트. 다시는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연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들의 궁극적 목표다.

**모든 사람의 건강하고 행복한 연애를 위해**

‘심리 상담’, ‘연기자 현장 투입’ 등의 단어에 귀가 솔깃하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이 흥미로움도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슬픈 사람들의 우울한 이야기를 매일 같이 듣는 전문가들의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의뢰인의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을 다루는 만큼 무거운 책임이 따르기에 심리적 부담도 적지 않다.

“저희 상담사분들은 일단 심리학 자격증을 하나 이상 가지고 계세요. 의뢰인의 신뢰 문제도 있지만 마음 불안정한 분들을 다루는 게 저희 일이니까 기본적 소양은 갖춰야죠. 연애심리학이라는 과목이 없다 보니 심리학, 통계학, 경제학 등 광범위한 분야를 공부하고 결합해서 저희만의 콘텐츠를 개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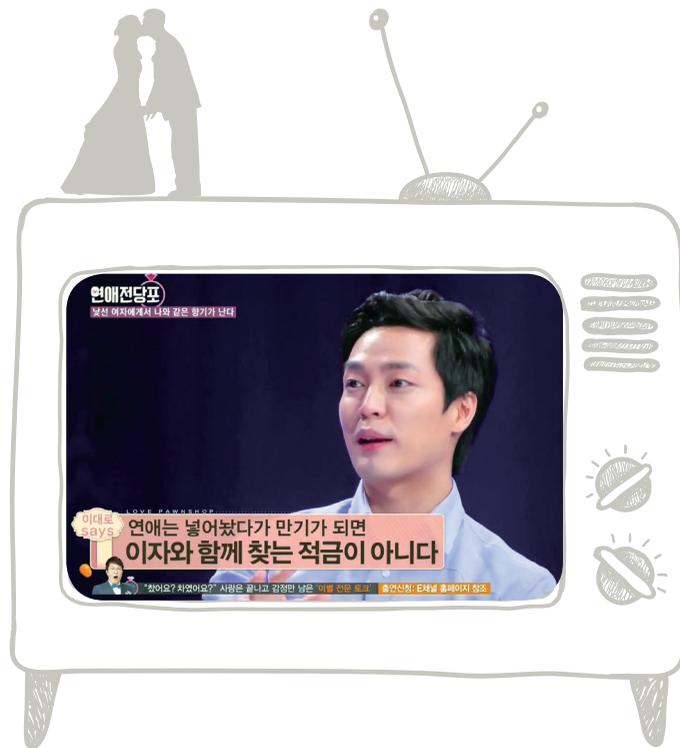
이대로 대표와 전문가들은 연애 관련 서적이 라면 국내 서적, 해외 서적 할 것 없이 모조리 구해 읽는다. 비슷비슷한 내용이지만 1%의 힌트만 얻어도 다행이라는 생각에서다. 이런 치열한 연구 과정을 거쳐 얼마 전엔 D.L 연애조작단만의 연애 툴, 5Plans 이론이 탄생했다. 몇 번이나 뜯어고쳐 완성했지만 한계가 없는 분야인 만큼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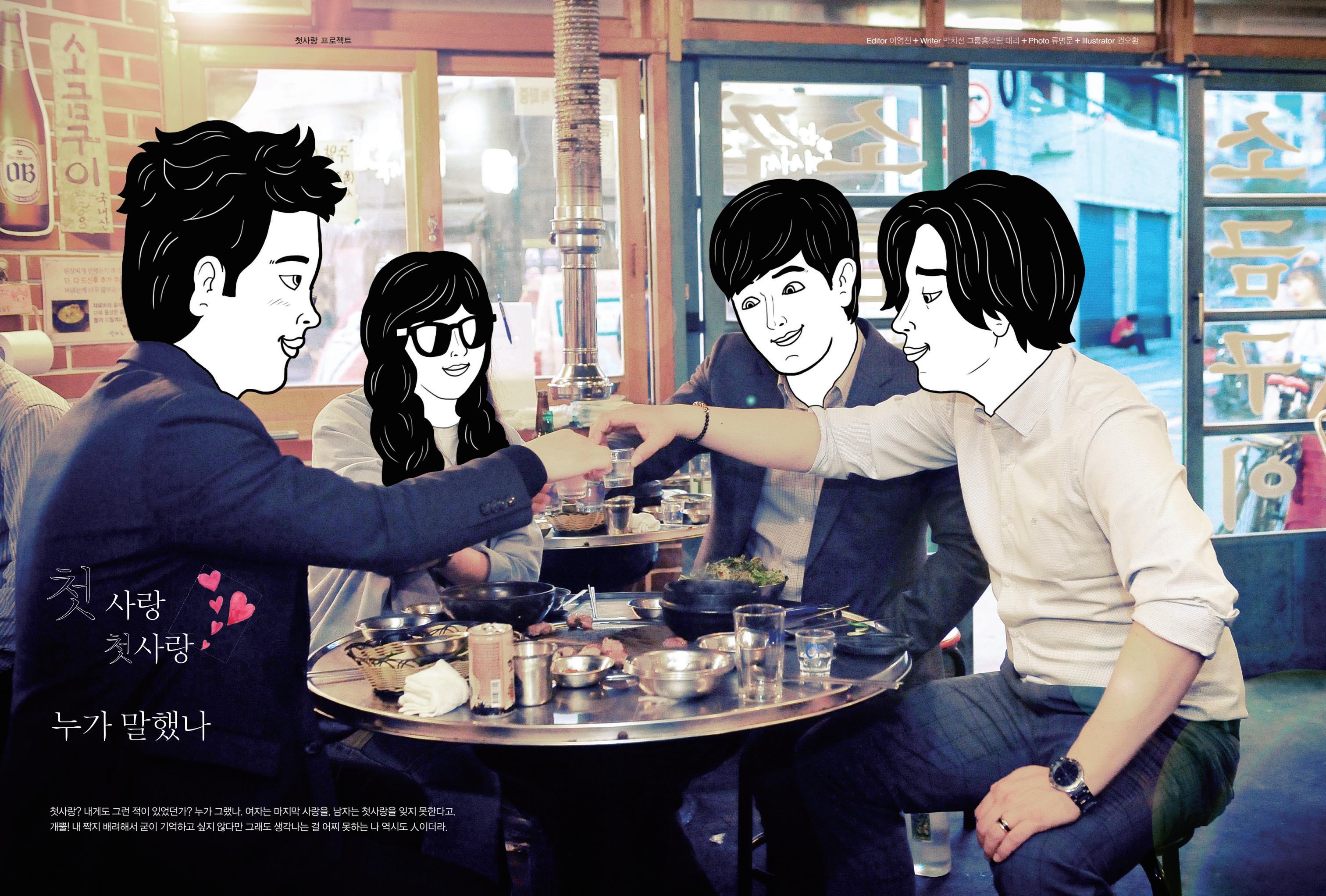
“의뢰인이 모든 걸 극복하고 결혼에 성공하면 그 성취감은 말할 수 없어요. 특히 자살 시도까지 했던 분은 잇을 수가 없네요. 고속도로에서 달리다 핸들을 놓으셨대요. 폐차시킬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 살아나신 거예요. 죽으려고 했는데 뭘 못하겠나 하면서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전화하셨던 거죠.”

의뢰인의 사랑이 이루어지면 D.L 연애조작단은 연기처럼 사라진다. 연애를 하는 데 타인의 힘이 개입됐다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럼에도 이들은 오늘도 연애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 쉬지 않고 달린다.

이 대표는 현재 연애 컨설팅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 모든 사람이 연애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행복하게 사랑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그는 화승 독자들에게도 한 가지 팁을 남겼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는 행복한 인생의 청사진이 있다면, 그 순간 그 사람에게 결핍된 게 무엇인지 찾으세요. 당신이 그 빈칸을 채워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큰 매력이 될 테니까요.”





첫 사랑  
첫사랑

누가 말했나

첫사랑? 내게도 그런 적이 있었던가? 누가 그랬나. 여자는 마지막 사랑을, 남자는 첫사랑을 잊지 못한다고. 개별! 내 짝지 배려해서 굳이 기억하고 싶지 않다만 그래도 생각나는 걸 어찌 못하는 나 역시도 사람이더라.

**J군** : 20대 후반. 자칭 연상녀 킬러. 2달 전 연상녀와 이별했다.

**B군** : 30대 초반. 결혼한 지 1년째, 가끔 정말 가끔 첫사랑을 떠올리는 불량 유부남.

**K양** : 20대 중반. 순수해 보이지만 알 건 다 아는 귀요미 돌직구 아가씨.

**K군** : 30대 초반. 연애 FA시장 5년차, 연애 세포가 죽어가고 있지만 정작 본인만 모른다.

**<DBT>** : 이런 자리에 나오기 쉽지 않은 거 나도 안다. 고맙다, 제군들. 지금부터 판도라의 상자를 열겠다. 다들 준비는 됐겠지? 먼저 '돌직구' 날린다. 도대체 첫사랑이 뭐냐? 먹는 거냐?

**J군** : 아뇨. 앉자마자 본론으로 들어가는 건가. 음... 나에게는 첫사랑은 있었어. 때는 바야흐로 대학교 시절이었더랬지. 살면서 맺는 인연은 많아. 하지만 지금 생각해도 '사랑이었다'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여자가 첫사랑 아닐까? 가장 사랑했고, 지금도 만나고 싶은. 나는 필리핀에서 교환학생이던 시절 첫사랑을 만났어.

**B군** : 그런데 말이야. 그 당시에 '아, 이 사람이 내 첫사랑이다'란 감정이 드는 건 아니잖아?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상대가 첫사랑이지. 비록 내가 결혼을 한 유부남이긴 하지만 나에게는 첫사랑은 있었다고. 잠깐! 이거 익명 보장해주는 거지? 확실하지? 남자가 여자에게 헌신적으로 했다면 그건 사랑이야. 남자랑 여자는 사랑의 기준이 달라. 남자는 계산하지 않거든.

**K양** : 에이~ 여자라고 다 계산하는 건 아니야. 나는 길을 걸다가도 함께 했던 추억들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 어렸을 때였지만 그때 그 남자가 처음으로 내 기억과 사소한 물건에 의미를 부여해 줬거든. 그게 첫사랑이라고 생각해.

**K군** : 첫사랑? 글썄. 난 그런 거 잘 모르겠더라. 입사 전에 2년 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러고 보니 헤어진 지 벌써 5년 정도 됐군. 처음 정식으로 교제했던 그 여자가 첫사랑이란 생각이 들어. 진심을 다해 만났으니.

**<DBT>** :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첫사랑과 왜 헤어졌대?

**K군** :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만나는 것도 헤어지는 것도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 사람 좋아하는데 이유 없듯이, 헤어질 때도 이유가 없었지. 권태기라고 해야 하나? 그 당시에는 어느 날부턴가 함께 하는 모든 게 싫었어. 밥 먹는 모습 보는 것도 싫었으니까.

**J군** : 난 필리핀에서 만난 친구와 같이 미국도 여행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같이 시간을 보냈더랬지. 한국에 돌아왔는데, 복병이 있더라고. 집이

엄청 먼거야! 부산 - 청주였으니까. 장거리 연애,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너무 힘들었지. 매일 보던 사람을 잠시만 못 보게 되니 결국...

**K양** : 연예인들이나 헤어진 커플들이 주로 하는 말 있잖아. 성격 차이? 참엔 개꿀 뜯어 먹는 소리 줄 알았는데 확실히 성격 차이가 있긴 있더라. 물론 감수성 풍부했던 고등학생 때였지만 '이런 사소한 것에서도 의견 충돌이 생기면 앞으로는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믿음이 없어 졌다고 해야 하는 게 적당한 표현이겠네. 그러다 보니 점점 멀어지고 헤어졌지.

**B군** : 헤어진 이유라면, 새로운 만남에 대한 호기심? 그땐 어렸으니까.

**<DBT>** : 자자! 진정들 하시고! 혹시 첫사랑의 소식을 지금도 듣고 있나?

**B군** : 당연하지. 남자는 첫사랑을 정말 잊을 수가 없거든. 나도 그래. 헤어지고 난 후에도 몇 번 만나기도 했었고, 아직 연락처도 갖고 있는데? 종종 생각나.

**J군** : 당연하지! 요즘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SNS로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도 알고 있어.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알아? 오랫동안 전화하지 않았으니 그녀의 전화번호를 당연히 잊어버렸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휴대전화를 쥐었더니 손이 알아서 전화번호를 누르는 거야. 손가락이 기억하나 봐. 조건 없이 좋아했을 만큼 순수할 때라 여전히 기억에 남고 아련한 것 같아.

**K양** : 다들 그래? 뭐지 난? 애뜻한 건 사실이지만 굳이 연락처를 알고 싶진 않아. 헤어지고 연락은 왔었는데, 글썄... 물론 그 당시에 정말로 사랑했었고, 최선을 다했었어. 하지만 그 남자가 변했다고 느껴서 헤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나에게 '재수 없는 놈' 이야. 난 그 사람 소식 전혀 궁금하지 않아.

**K군** : 나랑 비슷하네! 뭐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개랑 아주 Dirty하게 끝났지. 끝나자마자 모든 연락처와 기억을 소각해버렸으니 당연히 알 턱이 있나. 지금은 그렇게 끝내버린 게 조금 후회되긴 해. 그래도 내게는 첫사랑이었는데.



**<DBT>** : 다들 사연도 가지각색이네. 역시 남자랑 여자는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 그런데 첫사랑,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만나겠어?

**K군** : 굳이 다시 만날 생각도 없고 마주친다면 머뭇거릴 것 같은데. 내가 활발한 성격이 아니라서, 그 친구가 알아서 피하든지 아니면... 사실 내 성격상 단 한 번도 그런 생각해본 적이 없어. 5년 동안 솔로로 지내고 있는데 지금은 혼자 너무 편하고 심지어 다른 여자를 만나야겠다는 생각도 사실 그다지 없네. 후~ 연애세포가 죽은 건가?

**J군** : 어? 그래? 난 당장 눈앞에 있으면 울 것 같은데, 미칠 것 같은데.

**B군** : 나도!!!

**K양** : 난 절대 다시 만나고 싶진 않아. 솔직히 시간 낭비 아닌가? 그때 좋았던 감정은 그때만 좋은 것이지, 지금도 좋겠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변했잖아. 단순히 어렸을 적 풋풋한 시절과 그때의 감정이 그리운 것일 뿐 이라고 생각해. 그때 그 감정은 좋았던 상태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름다운 것 같아.

**B군** : 이게 바로 여자 사람의 첫사랑인가? ㅋㅋㅋㅋ

**<DBT>** : 길을 가다 첫사랑을 마주치면 어떤 말을 먼저 할 것 같아?

**K양** : 잘 지내?

**J군** : 고맙다.

**B군** : 날 사랑했었니?

**K군** : 미안하다...

**<DBT>** : 워어서 드라마 한편 찍어도 되겠네~ 마지막으로 '첫사랑'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떠올라?

**K군** : 글썄. 딱히 떠오르는 생각이 없어. 행복함?

**B군** : 당연히 풋풋함 아닐까?

**K양** : 그렇지~ 순수함.

**J군** :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아련함?

**<DBT>** : 카~ 이거 뭐 다들 시인이구먼. 고맙다. 오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준 용기에 보답하고자 肉과 酒는 내가 쓴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꼭 캐리커처와 이니셜로 익명 보장해줄 터이니 많이 먹고, 많이 행복하시라. 어김없이 떠오를 내일의 태양처럼, 일도 사랑도 열정적으로 하시길.

**K양** : 그런데... 첫사랑이 중요해?

일동 : .....

# 영화 속 이별 공식 그토록 뜨거웠던 연인들은 왜 헤어졌을까?



**금기형**  
〈화양연화〉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세상은 '안 된다'고 말하고 연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 말한다. 금기를 뛰어넘는 사랑 이야기다. 누구나 한번쯤 가슴 떨리는 특별한 인연을 꿈꾼다. 그리고 그 사랑은 대개 금지된 것들을 극복해내는 스토리를 가진다. 금기를 위반한 데에서 따르는 깊은 고통과 불안은 한껏 애절해진 두 연인에게 사랑의 감정을 달구는 떨감이 될 따름이니까.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뜻하는 제목의 영화 〈화양연화〉는 이루어져서는 안 될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한낱한시에 우연히 같은 아파트로 이사 온 양조위와 장만옥은 서로의 배우자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다. 의심으로 시작된 감정은 사랑이 되지만, 둘은 결국 도덕적으로 선을 긋고 헤어진다. 몸 한 번 섞지 않은 절제심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바로 사랑이야”

강한 남녀. 이별 뒤 양조위는 캄보디아 사원에 구멍을 내고 자신만의 비밀을 처음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나 영화는 끝내 그 대사를 관객들에게 들려주지 않는다. 두 연인의 내밀한 감정을 영원한 비밀로 남겨두기 위함이다.

영화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속 두 연인 역시 허락되지 않은 사랑을 나눈 뒤 평생 비밀을 품고 살아간다. 결혼 후 무난한 삶을 살아가던 프란체스카는 남편과 아이들이 박람회에 간 사이 마을에 찾아온 낯선 남자 로버트에게 애뜻한 감정을 품게 된다. 사진작가인 로버트가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단 나흘. 로버트는 프란체스카에게 함께 떠나자는 제안을 하지만 그녀는 망설임 끝에 가족을 선택한다. 로버트가 떠난 뒤 다시 평범한 주부로 살아가던 프란체스카는 세월이 지나 어느덧 임종을 맞이하게 되고, 그녀는 조용히 고백한다.

“내 인생은 가족들에게 주었지, 그러니 나머지는 로버트에게 주고 싶어.”  
금기를 뛰어넘는 도피 대신 물리적 이별을 선택한 그들. 비록 몸은 멀어졌을지라도 마음속에서는 결코 이별한 적이 없었다.



**갑을 관계형**  
〈봄날은 간다〉  
〈이프 온리〉

이 세상에 완벽하게 평등한 관계가 존재할까. 갑을 관계는 엄연히 연인 간에도 존재한다. 약속 장소에서의 만남을 예로 들었을 경우 정확히 동시에 도착하는 연인은 드물다. 항상 한쪽이 조금 먼저 와 기다리며, 잘못하는 쪽과 용서하는 쪽은 대개 정해져 있다. 그리고 슬프게도 단 1%라 할지라도 한쪽이 상대를 더 많이 사랑한다. 누구나 '내가 더 사랑받는 쪽이길' 바라지만 연인 사이의 시소는 늘 한쪽으로 기울게 마련이다.  
〈봄날은 간다〉의 상우와 은수는 서로 너무나 다르다. 순수 청년인 상우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드러내며 사랑하고, 상처를 받으면 오래도록 괴로워하지만 은수는 아니다. 어린 외모 속에 숨겨진 고집과 결단력이 남다르다. 아마도 여러 번 이별의 고통을 삼켜보았을 은수는 그 상처들로 인해 이미 차가운 어른이 돼 버렸다. 경험의 높낮이인지 타고난

본성의 차이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상우는 끌려다니다 버림받았을 뿐이다. 애초에 은수가 원했던 건 잠깐 고독을 달랠 수 있는 관계였다. 간단히 끼니를 때울 수 있는 인스턴트 라면 같은 남자. 이별 후 매달리고 분노하고 깊이 침잠도해보지만 상우에게는 관계를 되돌릴 힘이 없다. 방법도 모른다. 애초에 관계의 갑은 은수였고, 을은 상우였으므로. 반대로 영화 〈이프 온리〉에서는 여자가 을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 같기는 한데, 여자는 이상하게도 언제나 외롭고 허전하다. 더 기대하고, 그래서 더 실망하는 건 여자 쪽이다. 남자도 여자를 사랑하긴 한다. 하지만 일과 관계에 치여 여자에게 상처를 주기 일쑤다. 비참한 순간이 반복되고 마침내 지칠 대로 지쳐 버린 여자는 이별의 말을 고한다.  
“내가 너에게 항상 두 번째라는 건 가슴 아픈 일이야. 더 비참한 건 그 상황에 익숙해진다는 거지. 난 그저 사랑받고 싶을 뿐이었는데.”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내가 아니길”

“새것도 언젠가는  
현것이 돼”



권태기형

〈우리도 사랑일까〉  
〈블루 발렌타인〉

미셸 윌리엄스를 '권태기형 이별'의 대표 여배우라 불러도 좋을 듯하다. 그녀가 맡았던 〈우리도 사랑일까〉의 마고, 〈블루 발렌타인〉의 신디 모두 익숙해진 현실에서 잃어버린 환상을 갈구하는 여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인간관계 전문가들조차 '사귀지 3년 이내에 권태기가 오는 것은 자연현상'이라 단언할 정도로 위태위태한 오래된 관계. 〈우리도 사랑일까〉의 마고 역시 이러한 이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에 이제는 오누이 같아져버린 남편 루와의 결혼을 끝내기로 결심한다. 대신 놀이기구에 타듯, 자신을 흥미하고 짜릿하게 만들어주는 새 연인 다니엘과의 인생으로 이동한다. 〈블루 발렌타인〉의 신디는 자신의 모든 걸 감싸주는 다감한 남자 딘과 영원한 사랑을 꿈꾼다. 하지만 둘 사이의 자잘한 문제들은 젊은 연인을 지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되자”라고 말하는 딘. 반면 “엄마 아빠처럼 되기는 싫어. 한때는

서로 사랑했겠지, 날 날기 전에는. 사랑은 식어버리는 걸까?”라며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는 신디. 혼자일 땐 쉽게 착각한다. 사랑만 시작되면 영원히 행복할 거라고. 그러나 손끝만 스쳐도 짜릿하던 연인이 긴장감 전무한 권태 커플이 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렇게 많은 연인이 더 이상 두근거리지 않는다고, 섹슈얼한 매력을 찾기 어렵다고 각자의 길을 간다. 그러나 나이를 먹으며 더욱 풍요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연인들은 분명 존재한다. 그들은 곁에 있는 이를 매일 새롭게 바라보려 노력하고, 오랜 시간 고락을 함께 한 상대를 신뢰로 대한다. 물론,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우리도 사랑일까〉에서 두 번째 사랑도 결국 권태를 맞고 마는 마고가 홀로 놀이기구를 타는 장면이 낯설지 않은 이유다. 놀이공원의 문이 닫히는 순간 현실로 돌아오듯, 환상으로 시작한 사랑도 곧 일상이 된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그 답을 알기 위해, 혹은 그 쓸쓸함을 나누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사랑 영화를 보고 소설을 읽는다.



재결합 실패형

〈시라노 연애조작단〉  
〈연애의 온도〉

“결국 변한 게 하나도 없잖아”

포털 사이트에 '재결합'을 검색해 보자. 질문들이 우수수 떨어진다. “다시 만나도 괜찮을까요?” “또 헤어지면 어떡하죠, 너무 고민이 됩니다.” 당연하다. 한 번 헤어졌던 이와 다시 만나는 일에는 묵직한 고민이 따른다. 이성적이 되고자 노력하고,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저울질도 해본다. 하지만 감정에 이끌려 관계를 또 다시 시작하곤 한다. 과연 사랑은 돌아오는 걸까. 삭막한 말이지만, 깨진 접시는 다시 붙여도 티가 난다. 사랑도 그렇다. 이별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연인은 같은 이유로 또 헤어질 확률이 정말 높다. 한 연애 컨설팅 회사의 리서치를 보면, 헤어졌던 커플이 다시 만날 확률은 82%나 된다. 그런데 똑같은 이유로 또 헤어지는 커플이 무려 97%다. 100쌍 중 고작 3쌍만이 재결합에 성공한다는 이야기다. 영화 〈시라노 연애조작

단〉에서 병훈의 옛 연인 희중은 재결합을 원하는 그의 말에 이성적인 결말을 고른다. 남자의 신뢰부족으로 한번 헤어졌었기에 냉정하게 자신의 갈 길을 가는 것이다. 후회도 미안함도 안타까움도 흘려넘치지만, 다시 시작해 봐야 이별을 반복할 것이라는 쓸쓸한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이별-재결합-이별의 과정을 현실적으로 그린 〈연애의 온도〉속 명대사를 살펴보자. “이것 봐! 결국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사내커플이던 남녀는 이별 후 다시 만나기로 한다. 놀이공원에 놀러 간 연인. 내내 거리감을 느끼던 여자는 빛속에 풀썩 주저앉아 버린다. 곁에 연인이 있음에도, 무너져버릴 정도로 외로운 그 마음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다. 그래서 여자는 담담히 걸어가 남자는 뒤에서 바라본다. 그렇게 다시 이별한다. 이제는 서로가 바뀌지 않을 것임을 아주 명확히 알아버렸기에, 두 번째 이별은 진짜 이별이다. ■■■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관계

# 엄마와 딸



엄마는 젊었고 딸은 어렸다. 사진 속 둘은 꽤 행복해 보인다. 새삼 돌이켜 물었다. 왜 지금은 그때만큼 자주 엄마와 함께 사진을 찍지 않는 걸까. 화승소재 품질개선팀 박미정 사우는 10월 결혼을 앞두고서야 엄마와 함께 활짝 웃으며 카메라 앞에 섰다. 과거의 사진과 현재의 사진을 번갈아 보다가, 두 사람의 속내를 듣다 가슴에 우물이 패이고 그 속에 물이 그득 차오르는 기분이 들었다. 엄마와 딸의 이야기는 늘 그렇다. 특별한 이야기라 그런 게 아니라 특별한 관계라서 그렇다. '엄마와 딸'이니까.

오랜만의 데이트를 기대하며 한껏 멋을 부리고 나온 박미정 사우와 그녀의 엄마. 다정하게 팔짱을 낀 두 사람은 님은 구석이라곤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환한 미소만큼은 언뜻 겹쳐 보였다. 미정 씨는 오늘 촬영 전, 잠을 내어 엄마와 함께 앨범을 들춰보았다 했다. 사진 한 장 한 장에서 그 시절 추억이 절로 떠올랐다고. 열 살 무렵 여름, 그러니까 그녀의 초등학교 여름방학 과제는 씨름이었다. 미정 씨는 그날이 아직도 생생하다. 엄마의 세상 편한 고무줄 바지와 리얼한 표정까지. 딸아이의 여름방학 숙제로 씨름 증거물을 남겨야 했던 엄마는 오늘도 한 건 하러 나왔다고 들뜬 기색을 드러냈다.

“나이를 먹어도 똑같네요. 20년이나 지났는데 오늘도 딸 숙제하러 나왔잖아요! 호호~”

### 서로를 가장 사랑하면서도 가장 아프게 하는 사이

모녀는 취재진에게 어릴 적 사진을 보여주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다. 마치 오래된 친구 사이처럼. 옛 기억을 더듬으며 이야기 나누다 보니, 왜 그리 서로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나는지. 결혼을 앞둔 딸과 엄마 사이에 말로는 표현 못할 애뜻함이 묻어났다. 열 달을 뱃속에 품은 게 엇그제 같은데 시집을 가다니. 불면 날아갈까, 만지면 부서질까 애지중지 키워온 딸은 어느 날 집으로 사윗감을 데리고 왔다.

“왜 이렇게 빨리하는지 몰라. 그래도 딸이 벌써 이렇게 컸나 싶기도 해요. 뭐 어떡해요, 둘이 그렇게 좋아 죽는 걸. 나한텐 '명품'인 우리 딸, 우리 보물을 지켜줄 금고개 생겼으니 감사히 여길



래요. 아주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금고 같은 사  
위가 생겨서 기뻐요.”

아끼는 막내딸을 선뜻 내어줄 수 없어 끝까지 버  
티다가, 한창때 시집을 보내야 시댁에서 귀염 받  
을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생각을 고쳐먹었다는 엄  
마. 한참을 듣고 있던 미정 씨가 쑥스러운 듯 고  
개를 푹 숙였다.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해주면서도  
가장 안타까워했던 친구 같은 엄마였다. 상대방  
을 위한다는 이유로 때로는 모진 말과 행동을 해  
서로 상처받는 일도 종종 있었긴 했지만.

“결혼 준비하면서 예민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엄  
마를 신경질적으로 대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늘 본인보다 자  
식을 먼저 생각하고 본인의 삶은 저만치 뒤로 미

루어놓으신 본인데... 결국 자식들은 모두 결혼  
하고 부모님만 남으신 게 너무 죄송스러워요.  
그래도 엄마, 나 결혼하면 더 잘 할게. 집에도 자  
주 올 거야.”

“됐어, 오지 마! 어디 멀리 가는 것도 아닌데 뭘.  
자꾸 친정 와서 엄마한테 칭얼대기만 할 거잖아.  
엄마 밥 줘, 엄마 재워 줘, 엄마 놀아줘. 아우 지  
겨워~”

하나를 보내면 둘이 되고, 둘을 보내면 넷이 되  
고, 다섯이 되고... 챙겨야 할 사람이 기하급수적  
으로 늘어나는 게 좋은 일만은 아닌 것 같다는 엄  
마. 퉁퉁거리는 표정 그 너머엔 엄마의 진심이 있  
었다. 오히려 딸에게 못해준 것만 마음에 남아 애  
투하기만 하다.



### 엄마는 딸이며 그 딸은 다시 엄마가 된다

“맞벌이 하느라 자식 뒷바라지가 다 뭐예요, 사  
랑도 충분히 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예쁘  
게 잘 자라줘서 감사할 뿐이지요. 만지기도, 보  
기도 아까울 정도로 귀한 딸이에요. 오히려 제가  
자식한테 많은 걸 얻은 부모네요. 이렇게 사보에  
도 나오고.”

미정 씨는 맞벌이 탓에 집 안팎으로 고군분투했  
던 엄마가 늘 대단해 보였다. 그것은 ‘엄마’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테다. 물론 늘 씩씩해  
보이기만 한 엄마에게도 꽃 같은 시절이 있었더  
랬다. 아름다운 로맨스도 꿈꿨고, 하고 싶은 일  
도 많았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이름  
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됐다. 하지만 그런 짐  
인 듯 텅 빈 듯한 일상을 하나하나 채워가다 보니  
‘엄마’라는 고운 그림이 완성되어 간다. 지금, 그  
고운 그림을 완성시켜 줄 딸의 결혼을 앞두고 엄  
마는 해주고 싶은 것도, 당부해야 할 말도 한가

득이다. 그래도 행여나 딸이 부담될까 신중을 신  
중을 기해 꺼낸 찻마디가 ‘그저 잘 살았으면 좋겠  
다’는 것.

“왜 ‘잘 산다’는 말에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잖  
아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행복까  
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살았으면 해요.  
딸에게 남은 인생을 잘 살아달라고 부탁하고 싶  
어요.”

학생 땀 공부하느라, 직장 땀 일 하느라 정신없이  
살던 딸은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엄마는 세상  
에서 가장 든든한 울타리이고, 그만큼 자신이 엄  
마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새로운 가족과  
의 미래를 꿈꾸며 엄마의 울타리를 떠난 미정 씨  
역시 아이를 낳고 속을 썩어가면서, 그 아이를 어  
른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엄마가 될 것이다. 그녀  
도 아이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겠지. 그리  
고 언젠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울타리 밖으로 내  
어주는 때가 찾아올 것이다. 지금의 미정 씨와 엄  
마처럼 말이다. 🇰🇷



몇 년을 우두커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없어져버리고 나면 이내 기억 속에서도 희미해질 테다. 과거 영예로웠던 시절은 어느새 증발하고, 조용히 떠날 준비를 하는 공간들. 어쩌면 문득 그리워질 수도 있을 그곳을 렌즈 너머로 기록했다.



서민아파트의 살아있는 역사  
회현 제2시민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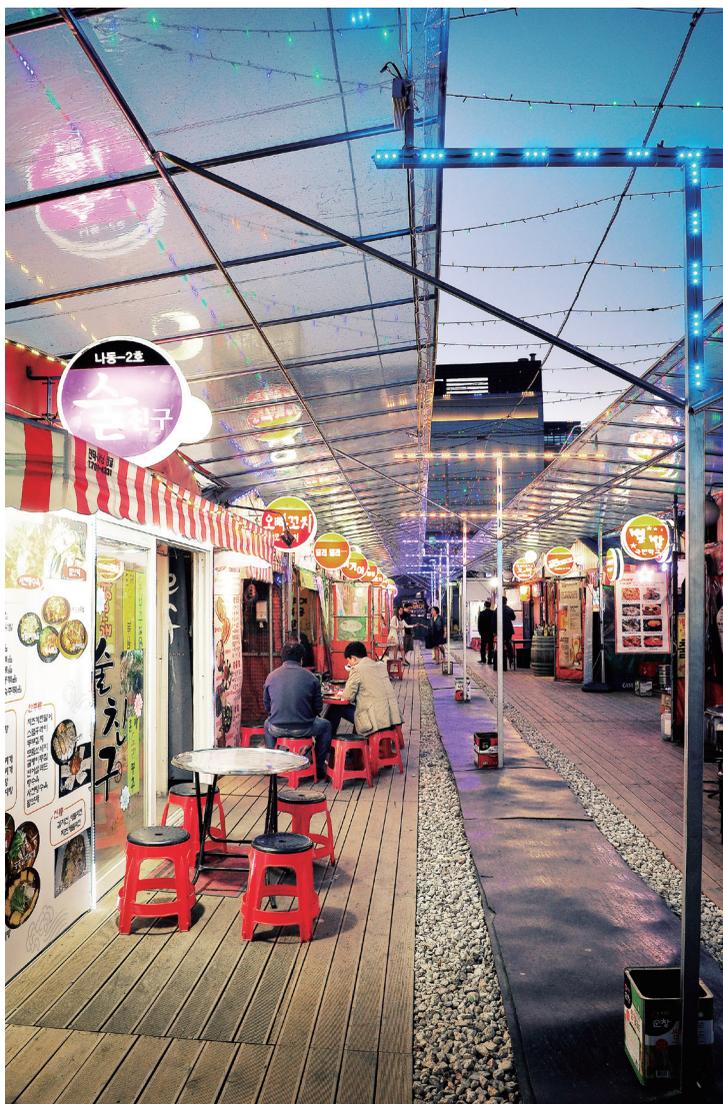
명동 뒷골목, 굽이굽이 경사진 언덕을 걸어 올라가다 보면 오래된 아파트 한 채가 눈에 들어온다. 6층 공중다리를 통해 건물로 출입하는 독특한 구조의 회현 제2시민아파트는 1970년 5월 남산 언덕에 자리 잡았다. 준공 초기만 해도 고위 공무원과 경찰, 연예인 등 중산층들이 살았을 만큼 고급아파트였던 이곳은 비싼 입주금 탓에 시민아파트라는 이름이 무색한 시절도 있었다. 이후 시간이 흐른 뒤 진짜 서민들이 아파트의 주인이 되었고,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삶의 애환과 기쁨을 간직해 주었다. 그러나 너무 낡은 탓일까. 2004년 재난 위험 시설물 D등급으로 지정되면서 결국 2006년 서울시가 철거를 결정했다. 사람들은 다른 터전을 찾아 떠나기 시작했고, 지금은 처음 입주민의 절반 정도가 아파트를 지키고 있다. 그마저도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하는 이들이 많아 낮에는 거의 빈 건물이나 다름없다. 근대식 아파트의 상징이었던 'ㄷ'자 모양의 건물 양식과 그 가운데 위치한 중정만이 지난날의 번영을 상징해줄 뿐, 오히려 스산한 느낌마저 자아낸다. 이 흔치 않은 분위기 덕분에 영화나 드라마에 종종 등장하면서 주목을 받자 서울시는 회현 제2시민아파트의 존폐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서울의 마지막 남은 시민아파트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주민 보상 문제가 잘 해결된 뒤의 이야기겠지만, 그동안 덤덤히 보금자리가 되어주었던 공간이 부디 자리를 지켜낼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

사라지는 공간을 찾아서  
떠나는 그대여 슬퍼말아요



한잔의 위로  
용산 포장마차촌

주머니 가벼운 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곳. 24개의 점포로 이루어진 용산 포장마차촌에 어둑어둑 땅거미가 내릴 무렵이면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든다. 서울에 잠시 들른 여행객이 역 앞에서 간단히 끼니를 때우기도 하고, 일과를 마친 회사원이 술잔을 기울이며 지친 하루를 달랜다. 각박한 서울 하늘 아래 잠시 쉬어갈 쉼터를 제공했던 이곳은 내년 용산공원이 완공되는 대로 철거된다. 생활전선의 끝자락에 내몰린 이들이 재기를 꿈꾸며 포장마차촌을 형성했지만, 불어 닥친 재개발의 바람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미 2013년 한 차례 사라질 위기를 넘긴 포장마차촌은 서울시의 중재 아래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터라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다. 진한 아쉬움이 남아서일까. 지금 이곳을 지키는 상인들도, 습관적으로 찾는 단골손님들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붙잡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술잔을 부딪친다.



멈춰버린 회전목마  
용마랜드

어린이라면 부모님 손을 이끌고 찾아갔던 동네 놀이공원. 지역마다 적어도 하나씩은 있던 '○○랜드'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대형 테마파크에 밀려 자취를 감춰야 했다. 그중 한 곳인 용마랜드는 서울 최대의 야외수영장, 눈썰매장을 보유해 90년대 초반까지 호황을 누렸으나 영업 부진으로 결국 2011년 문을 닫았다. 이후 불량 청소년의 아지트로 변모해 우범지대로 추락하는 등 불명예를 안기도 했지만 최근 '버려진 놀이공원'이라는 테마가 입소문을 타면서 다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기 시작했다. 색이 바래 칠이 벗겨진 놀이기구들이 오히려 빈티지한 색감을 자아내며 아날로그 감성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전성기를 회복한 용마랜드가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폐 놀이공원이 눈엣가시였던 인근 지역주민들의 간곡한 요청으로 대형 테마공원이 들어선다는 소식이다. 산악 체험장과 캠핑장 등을 갖춘 휴식형 공간으로 거듭날 용마랜드. 주말이면 어린이들의 웃음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그곳이 다시 한 번 과거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지 기대해본다. 🇰🇷



# Good bye

## 너에게 이별을 고하다

헤어지자, 헤어지자 마음먹은 지만  
벌써 몇 년째. 막상 아쉽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놓지  
못하고 끝내 붙잡고 있었다.  
하지만 이젠 미련 없이 떠나겠다.  
너에게 완벽한 이별을 고한다.



화승T&C 관리팀 이재훈 사원



### 술 그리고 담배

한해의 시작과 끝에 항상 외쳤던 굳은 다짐은 너와의 이별이었다.  
하지만 친구가, 동료가 하나둘씩 널 떠나보내는 동안에도  
난 결국 끝자락을 놓지 못했지. 냉정하게 돌아서려고  
앞으로 너와 입 맞출 일 없을 거라 공표도 했었는데.  
힘들 때면 어김없이 생각나더라.  
다신 널 찾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서인지 오히려 더 간절해지더라.  
널 놓지 못하는 게 나를 깎아 먹는 일인 걸 알면서도  
미루길 여러 번이었지만 오늘은 제대로 헤어지려 한다.  
그동안 힘들 때 옆에 있어줘서 고맷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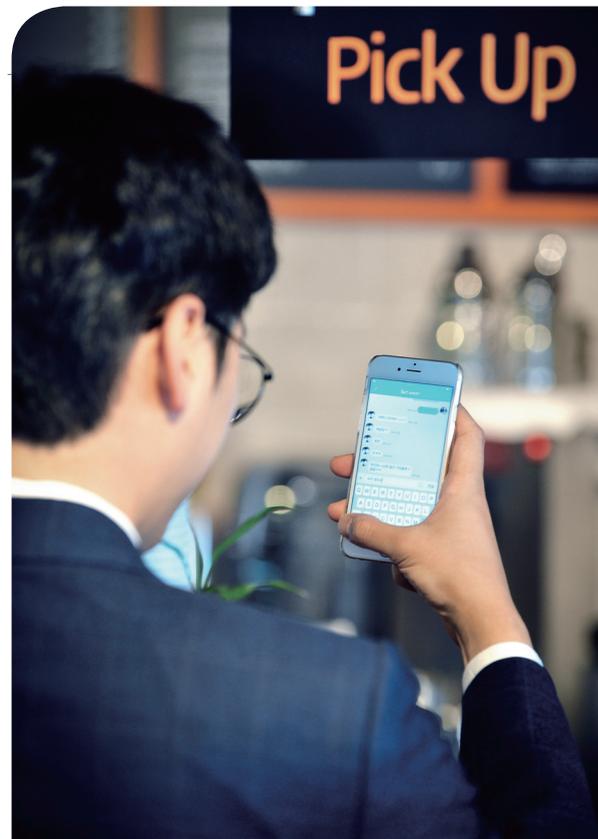


### 나쁜 버릇 그리고 중독

어려서부터 뭐가 불안했는지 가만히 있지 못했다.  
손톱을 하도 물어뜯어 밑 살은 언제나 벌겋게 부어있었고,  
심 없이 다리를 떨어 엄마한테 등짝 맞은  
횃수만도 수백 번이니깐, 캔 음료를 따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줍기 힘들게 됐어도  
'나쁜 버릇'이라 불리는 널 버리지 못했지.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러느냐는 타박에도  
곳곳하게 뜯고 떨어진 나. 이젠 그만하려면.  
어제 카페에서 우연히 널 버리지 못한 또 다른 사람을 봤거든.  
...진짜 별로더라고.  
손톱 곱게 길러서 캔 음료도 내가 따먹고,  
다리 그만 떨어져 날려 먹던 복(福)도  
다시 끌어올 테다.

###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어느 광고의 카피 문구처럼 나와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걸  
머리로는 안다. 하지만 내 모든 걸 담은, 무료한 시간을 달래주는  
널 가만히 내버려두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더라.  
출퇴근길, 밥 먹을 때, 길 걷다가, 자기 전에. 그 어떤 순간에도  
놓고 싶지 않았다. 매일 달아오르게 해서 미안하다.  
이젠 널 좀 놓아주려나.



### 미련한 놈의 미련

끝까지 버리지 못할 줄 알았다.  
네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이 모든 것들을.  
시장에서 오전 원짜리 잠옷 바지를 맞춰 입고  
우리는 그렇게 깔깔대며 웃었었지.  
서로를 생각하며 수줍게 골랐던 선물도,  
마주앉아 경쟁하듯 이 닦았던 칫솔도,  
우리의 삼 년을 담았던 카메라도 다 내다 버렸다.  
이것들 내놓으면서 너도 같이 지운다.  
왜 하필 내 집에 이걸 다 남기고 가서는.

귀찮음과  
수집,  
그사이 어딘가

주머니에서 뭐 좀 꺼낼라치면 걸리적거리는 니들.  
카드 굵은 영수증, 날짜 지난 쿠폰들.  
소비 내역을 간직하고자 한 수집이라고 해두...기엔 너무 합리화인가.  
눈에 보인 김에 다 꺼내서 싹 버려야지. 주기적으로 갖는 폐기 타임!  
지갑 속에도, 책상 위에도, 서랍 안에도 꾸깃꾸깃. 뭐 이렇게 끝도 없이 나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은 것 같네.  
어? 두 장, 네 장, 일곱, 여덟, 아홉...  
이왕 나온 김에 한 장만, 한 장만 더...!



끊을 수  
있을까,  
야밤의 친구

귀찮아서 안 버린 쿠폰 덕분에 공짜 치킨 한 마리 득템!  
슬슬 야식 끊으려고 했는데 잘 됐다.  
이 쿠폰으로 마지막을 장식하는 거야.  
하야, 널 떠나보내려니 벌써 아쉽다.  
퇴근 후 TV 보면서 닭다리 뜯는 게 낙이었는데.  
점점 배만 볼록해지는 걸 보니  
이제 이별할 때가 온 것 같아.  
너와의 헤어짐은 그 어떤 것보다도 자신 없지만  
그래도 이번엔 마음먹은 대로 단호하게 헤어져 보자.  
날 꿈꿨 붙잡고 있던 이 요망한 것들,  
이젠 안녕이다. 안녕! 🇰🇷



# 내일로 떠나다

가슴이 뛰는 길을 찾아  
내일의 꿈을 향해 떠납니다.

새로운 도전을 허락하는 순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문이 열립니다.

어제를 돌아보고,  
오늘을 마주 하고,  
내일을 그려보는 시간 속에

한 뼘 더 성장한  
나를 발견합니다.





영화감독 봉만대

# 니들이 에로를 알아?

스무 살, 갓 상경한 청년은 에로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무작정 총무로에 찾아갔다. 그로부터 26년 뒤 그는 영화, 드라마, 예능 할 것 없이 장르를 불문하고 종횡무진 활약 중이다. 이 보수적인 대한민국에서 '에로'를 전면에 내세우고, 19금 애드립을 톡톡 내던져도 거북하지 않은 사람. 애로(愛路) 개척자, 에로 영화계의 거장 봉만대 감독이다.



그 '운대'가 조금 늦은 나이에 터졌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생활 했어요? 힘들었을 것 같은데.

2007년부터 2009년 말까지 통장 잔고가 완전 바닥을 쳤어요. 보통 영화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빛이 생겨요. 그리고 작품을 하면서 서서히 값이나가는 거죠.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뭘 해도 안 되는 거야. 시나리오도 안 써지고, 될 것 같은 작업도 계속 었어지고. 그때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무렵인데 생활비가 없으니까 와이프한테 나가서 택시 운전이라도 해보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택시 하려면 1종 면허 있어야 되는데 너 2종 면허밖에 없잖아!” 라고 하대(웃음). 그래서 결국 좌절. 그냥 하던 거 열심히 해야지 했죠.

〈도쿄 섹스피아〉, 〈이천년〉, 〈맛있는 섹스 그리고 사랑(이하 맛.섹.사)〉 등 데뷔 이후 했던 작품들이 줄줄이 다 성공했는데 갑자기 왜 갑자기 슬럼프가 찾아왔을까요?

특히 〈맛.섹.사〉는 저를 충무로에 처음 데뷔하게 해준 작품이라 무척 애착이 가요. 동시에 저를 슬럼프에 빠트린 애증의 작품이기도 하죠. 〈맛.섹.사〉가 잘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제 목표는 오로지 '에로 영화감독'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감독이 됐잖아. 목표를 이루고 나니 목표의식이 상실된 케이스랄까요. 차라리 처음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고민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극복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준비하던 건 미루고 그 전에 생각해보던 것들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5년 전에 써놔던 시나리오도 꺼내서 다시 한번 보고, 〈섹스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테이프〉가 그 시기 즈음에 나온 건데, 사람들이 다 말렸던 작품이에요. 특별히 잘되진 않았지만 미련이 남았던 작품을 함으로써 뭔가 정화되는 느낌은 확실히 있었죠.

고등학교 때부터 에로 영화감독을 꿈꿨다는 대목이 궁금하네요. 보편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때도 성인물에 조예가 깊은 학생이었나요?

뭐 평범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성인잡지를 접했으니까. 그때는 비디오가 없었거든. 〈플레이보이〉라는 잡지를 봤었는데 성적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라 그랬는지 굉장히 강렬했어요. 뜨거운 태양같은 느낌. 아직도 23페이지에 있던 여자가 잊히질 않네. 그 북슬북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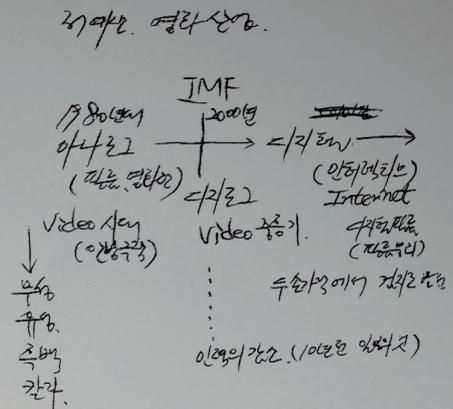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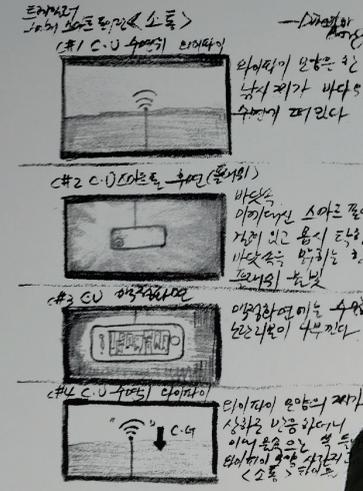
예능 프로그램에서 익히 봐왔던 모습처럼 자극적인 이야기만 많이 할 거로 생각했다. 그러나 눈앞에 앉은 봉만대 감독은 에로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이 확고한 사람이었다. 게다가 솔직하고 사뭇 진지하기까지 했다. 가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긴 했지만 그 또한 봉만대만이 가진 매력 이리라. 1999년 무턱대고 영화판에 뛰어들어 자신만의 영역을 개척한 그. 이제 에로 영화계의 거장으로 우뚝 선 봉만대 감독은 또 다른 도전을 준비 중이다. 미리 밝히건대 야한 내용의 인터뷰를 기대했다면 조금 실망스러울지도 모르겠다.

신작 〈뭇, 치명적인 유혹〉이 전주국제영화제에 초청됐었죠? 곧 개봉한다고요.

사실 준비기간도 길었고 세상에 선보이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작품이라 더 애착이 가네요. 영화제 출품이 처음이기도 하고요.

영화제가 처음이에요?

아니 뭐, 처음 가는 거라고 할 순 없죠. 매년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때 저도 부산에 있긴 했으니까. '영화제에 초대받지 못한 자들의 모임'에 참석했거든요. 그때는 2년 뒤 제가 레드카펫을 밟고 있으리라 생각도 못했죠. 인생 참 느닷없죠? 그사이에 어떻게나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지만 과거부터 해왔던 것들이 축적되어 만들어진 게 아닐까 생각해요. 왜 '운대'라고들 하잖아요. 그게 잘 맞아 떨어질 것도 있고요.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허명으로 허위말고  
모든 것은 마음대로 각각 자기만의  
나를 먹고 ..... 비평해서 2장 3면

- Workid  
X아이스 세션
- 차원의 흐름 (대기/비디오)
  - 장안의 변화
  - 개인적 변화
  - 여동 영타야 야동 영타.
  - 사다리 아이디어 (비디오) 부분
  - 시프린 (리미트 영타)
  - 아나로그 영타 → 사다리 → 디지털
  - 디지털 (비디오) → 디지털
  - 디지털 (비디오) → 디지털
  - 사다.

기여하는 것은 레퍼런스  
그것은 영타가 가져야 할 기본  
— 영 —

무엇을  
가장  
아나로그  
디지털 (Video) - IMF  
디지털 (cam) - IMF  
스마트 (DTV) - IMF

<지연은 영타의 영광  
대부분 영타의 영광  
가장

비평  
비평  
장르의 영타  
아나로그 영타  
비평

길. 내바 건으로 가이 데.



**그만!**

왜, 이런 얘기 안 좋아해요? 10대 때는 다 그렇지 않나? 다만 관심이 많으니까 이왕이면 그 세계로 직접 들어가서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쭉 했죠. 어릴 때부터 꿈꿔서 그런지 아직도 소년 시절의 동경이 좀 남아있어요.

**어떤?**

이름테면 흰색 속옷에 관한 거라든지...

**안 그래도 인터뷰 전 영화 몇 편을 다시 보니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왜 봉만대 감독 영화에서는 여주인공들이 주로 흰색 속옷을 입고 나올까.**

사춘기 때 여자 속옷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한데 쉽게 접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빨랫줄에도 잘 안 넘어놔요, 숨겨놓지. 근데 혼자서 상상을 해보면 왠지 낯은 집계에 걸려서 바람에 한없이 나부끼는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때의 판타지를 영화에서 푸는 거죠.

**스스로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지구를 지키는 사람.



**지구를 지키는 사람?**

지구에 사람이 많은 게 좋아요 사자가 많은 게 좋아요? 사람이 많으려면 당연히 사랑을 해야죠. 그리고 난 사랑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주는 영화를 만드니까 지구를 지키는 거지.

**에로 영화감독이라는 타이틀에 대해 후회해본 적은 없어요?**

없어요. 제가 붙인 것도 아니고, 그렇게 불리는 것에 대해 감사하죠. 솔직히 세상에 에로 영화감독이 어디 있어요. 포르노면 포르노지. 에로 영화와 포르노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행위만 있다면 포르노죠.

**그래서인지 봉만대 감독의 영화는 수위 높은 베드신도 여자들이 봤을 때 별 거부감이 없어요.**

여자 시선에서 쓴 작품들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요즘 남자 관객들이 나 미워하잖아(웃음). 에로에 대한 기준 자체를 남성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게 남자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하고 싶었던 건 남녀가 같이 손잡고 가서 보는 에로 영화를 만드는 거였어요. 좀 더 자극적인 걸 원한다고요? <아티스트 봉만대>에서 제가 이런 대사를 해요. “그런 건 집에서나 보세요.”



*도전하는 걸 좋아해요.  
경험주의자랄까.  
그래서 여러 분야에 손대는 걸 두려워하지 않죠.  
저한테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왜 하는 줄 아세요?  
재밌으니까! 해보고 싶으니까!*



**정말 서슴없네요. 그래도 이런 솔직한 면 때문에 요즘 찾아주는 데가 많죠? 얼마 전에는 드라마에서 연기도 하던데.**

불러주는 곳이 없을 때는 필요로 하다가 갑자기 찾는 곳 많아졌다고 거부하는 건 모순인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 스스로가 도전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경험주의자랄까. 남이 시도하지 않았을 때 먼저 해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 분야에 손대는 걸 두려워하지 않죠. 저한테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스태프들도 그래요. “감독님은 왜 영화 만드는 데 집중 안 하고 어떤 날은 방송 출연했다가 어떤 날은 연기했다가, <떡국열차>는 갑자기 왜 찍고 웹 드라마는 왜 해요?” 근데 왜 하는 줄 아세요? 재밌으니까! 해보고 싶으니까!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나만 가만히 있으면 쓰나요. 남이 하기 전에 먼저 습득하세요. 자기 자신한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질문도 해보고. 그래도 모르겠을 땐 세상에 질문해보세요.

**이름테면 어떤 질문일까요?**

8년 전 제가 ‘레조’라는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땐데, 신호 대기 중 옆 차선에 벤츠가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창문을 내리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벤츠를 몰 수 있나요?”

하하하, 그 운전자가 뭐라고 하던가요.

열심히 사세요.

**답이 났나요?**

비싼 차를 사려면 먼저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게 맞잖아요. 이상한 사람으로 보였을 수도 있지만 목표가 생기는 순간이었어요.

**BMW를 탄다니 그때의 목표를 이룬 셈이네요. 지금 갖고 있는 목표도 궁금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에로를 접목한 스릴러물을 만드는 것. 그걸 계기로 다양한 장르를 융합해볼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2년 안에 중국과 할리우드엔 진출하는 것.

**장르는 에로인가요?**

당연하죠. 안 불러도 갈 거예요. 부산국제영화제 간 것처럼(웃음). 비행기만 타면 되니까.

**멋있네요.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도 화승 신발 신고 싶어요. 화이팅해서 승리하는 기업 화승 화이팅~!🇰🇷



# 드론, 화승을 날다 2



알록달록 꽃이 잔뜩 만개한 어느 날, 지난 봄호에서 화승R&A와 화승소재의 멋진 항공뷰를 선사해준 드론과 함께 아산으로 떠났다. 2013년 화승그룹 <DBT> 가을호 '별 것 없는 화승' 편에서도 소개된 아름다운 정원 풍경과 화승인더스트리의 전경이 드론의 작은 렌즈에 담겼다. 이번호에선 현재 드론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 화승R&A SL생산기술팀 차동성 사위가 함께했다. 또 한번 비상하는 화승인더스트리 멋진 항공뷰를 만나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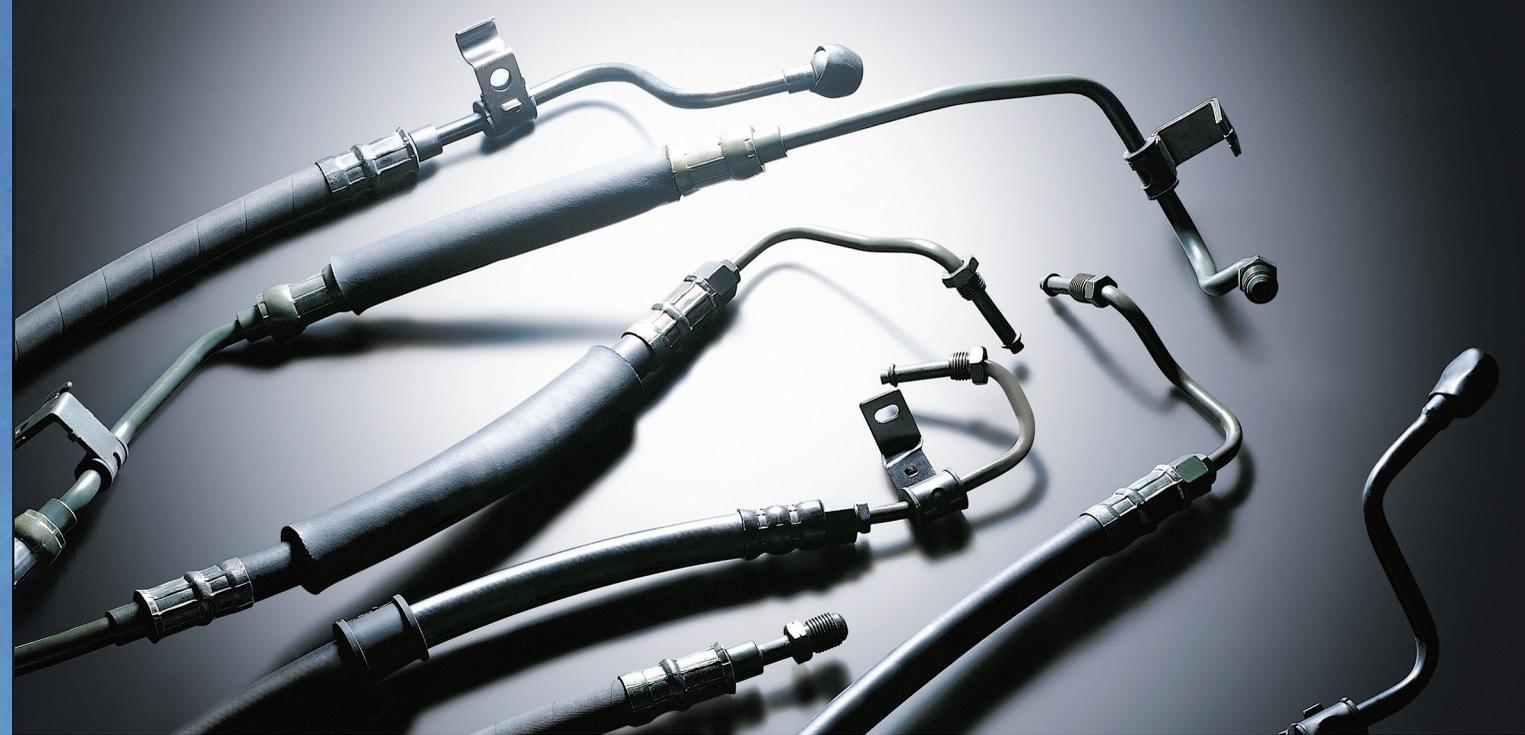
##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화승의 기술을 내려다보다

1969년 풍영화성으로 시작된 화승인더스트리는 국내 최고의 필름 제조업체로 더 넓은 세상을 향해가는 중이다. 라면, 과자, 음료수, 기저귀, 책 커버 등 우리 생활 곳곳에 녹아있는 다양한 포장재는 모두 화승인더스트리의 선진 기술력이 함께하고 있다. 2011년 9월, 세계 최대의 태양광 모듈 단일시장인 중국 쑤저우시 인근 태창에 설립되어 화승그룹의 글로벌 에코 프로젝트 전진기지로서 세계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HSP 등 해외 시장 개척과 함께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열정으로 미래를 향한 청사진을 밝혀 나간다. 매일 한 걸음씩 조금 더 우리의 일상에 녹아드는 화승인더스트리의 기술, 드넓은 세계의 하늘에서 함께 이들의 기술을 마음껏 내려다볼 수 있길 기대한다. 🇰🇷🇺🇸

# 선택과 집중이 만들어낸 신화 혁신적 기술경영을 통해 세계적인 그룹으로 도약하다

화승그룹이 스포츠용품 생산 전문 기업에서 이제는 자동차용 고무부품 전문업체로 더 알려지며 연 매출 4조원을 돌파하며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1953년 동양고무라는 상호로 창립해 현재는 자동차부품, 소재, 신발OEM, 종합무역, 정밀화학 등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며 명실공히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에 섰다. 거기에는 현승훈 회장의 과감한 사업 다각화와 집중을 통한 기술경영이 있었기에 변화되는 시장과 위기 속에서 기업을 상승시킬 수 있었다.

Cooperation (조선일보) 2015년 3월 9일 자 특집본



과거 IMF를 극복하며 현 회장이 선포했던 1차 VISION을 통해 2010년에 목표치 매출 3조 원을 초과 달성하며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화승그룹은 VISION 2020을 선포하고 글로벌 경영에 매진 중이다. 이번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해 그룹 내 여러 계열사는 혁신을 준비하고 있다.

(주)화승R&A를 비롯해 (주)화승T&C, (주)화승공조 등 자동차부품 사업군의 계열사들은 창틀고무인 웨더 스트립과 저압호스, 고압호스, 에이컨호스 등 고무 관련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현대기아자동차, GM, BMW, 폭스바겐 등에 공급한다. (주)화승R&A는 자동차 부품 산업을 주축으로 항공 분야, 복합소재 등 미래기술 및 신사업 연구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여 사업의 다각화에 나섰다.

소재사업군의 (주)화승소재는 중국, 인도 CMB 공장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해외영업 전략을 통한 글로벌 제품시장 점유율 확대에 주력 중이다. (주)화승인더스트리는 정밀화학 사업군에서 필름사업 부문을 더욱 강화하며 일본 유럽 등 새로운 시장 개척과 신사업인 EVA태양광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화승엑스윌은 컨베이어벨트, 산업용호스 및 시트류, 방현재는 물론 산업용 고무제품 일체의 개발과 유통을 하는 기업으로 드릴십, FPSO 등의 해양플랜트 설비의 가동에 필요한 각종 연료, 케미컬 및 Bulk Material을 공급받는 장비인 병커 스테이션용 호스를 개발 중이다.

(주)화승네트웍스는 통합구매, 철강, 섬유, 일반무역 사업 영역에서 경쟁력 있는 무역회사로 세계적인 종합무역상사로 도약을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잘 알려진 신발브랜드 OEM 사업에서 화승비나(베트남 동나이)와 장천제화유한공사(중국 대련)는 연간 4,000만 쵸의 아디다스 NEO 및 리복 (Royal) 운동화를 생산하며 세계 제1의 신발 공장이라는 명성이 높다.

이처럼 2015년 화승그룹은 스마트한 공격경영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다. 신사업 개척에 대한 투자보다는 기존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사업군 내에 다른 아이템을 개발하여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

다. 장기적인 경기 하락으로 국내 기업들이 고전하는 가운데 화승그룹은 기존 경영 철학과 전 임직원과의 소통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국내외 전 임직원들이 사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통해 의사전달과 공감경영을 이끌어내며 2015년,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승훈 회장의 선택과 집중, 변화와 혁신을 통한 기술경영이 만들어낸 화승그룹은 현재 5개 사업군, 국내외 25개의 계열사, 연 4조 원을 육박하는 매출의 글로벌 그룹으로 성장했다. '이제는 외형과 더불어 내실에 주력할 때이다'라는 현승훈 회장의 말처럼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외의 화승 임직원들이 어느 해보다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 성철스님과의 인연으로 35년간 108배를 한 뚝심 있는 경영인으로 알려진 현 회장은 "정상에 오르게 하는 것은 겸손이고, 정상에서 끌어내리는 것은 교만"이라는 말로 "우리 화승그룹은 올해로 62주년을 맞은 글로벌 중견그룹이다. 정상에 있을수록 몸을 낮추고 소통을 통한 경영에 임하겠다"는 경영철학을 밝혔다. 🇰🇷🇺🇸



화승비나 창립 13주년 기념 행사

# 뜨겁게 불러 봅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

작년 12주년 기념행사의 대미를 장식했던 '그리운 어머니'에 이어 화승비나가 또 한 번 가슴 뜨거운 이벤트를 준비했다. 13주년을 기념해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순간을 마련한 것. 절절한 눈물이 흐를 만큼 특별하고 고마웠던 만남, 그 날의 순간을 기록했다.

**새벽** 닭 우는 다섯 시 경, 우리는 작은 봉고차에 몸을 실었다. 4월 12일 오늘은 바로 화승비나의 13번째 생일이자 창립기념일 행사의 일환인 '사랑하는 나의 가족' 수상자 가족과 첫 만남이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화승비나에서는 사내 복지와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차원에서 2년째 가족의 특별한 사연을 모집하고 사랑의 편지 쓰기 대회를 진행해 우수자를 시상하고 있다. 사람 사는 곳 어디나 비슷하다지만 14,000명이 함께 모인 화승비나라는 '작은 사회' 속에선 매년 특별한 사연들이 접수된다. 아이의 첫 돌을 기념하거나 부모님의 건강을 기원하는 글부터 설 연휴 가정에서 일어난 일상적인 사연까지 수많은 편지 중에서도 몇몇 가슴 찡한 슬픈 사연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먹먹하게 하곤 한다. 계부의 구박과 폭력에 지쳐 태어나기도 전에 자신을 버린 생부를 그리워하며 쓴 수취인 없는 편지, 월남전 당시 살포된 고엽제 때문에 선천적 기형아로 태어나고도 4남매를 키워낸 오빠 이야기, 불우한 가정에서 자란 자신을 친딸처럼 받아준 시어머니에게 쓴 감사의 편지 등 슬프고 감동적인 사연이 한 가득이었다.

**올해** 행사 최우수상의 수상자인 영업부서 소속 직원 Ms. DIEN의 사연 또한 그렇다. 시골 농장에서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Ms. DIEN에겐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다고. Ms. DIEN이 아주 어렸을때 그녀



Writer 김현진 화승비나 3공장 주임 + Photo 정영섭 화승비나 교육팀 과장





의 아버지는 월남전 참전 중 지뢰를 밟아 두 다리를 잃었다. 당시 한미연합군의 도움을 받는 월남군이었던 아버지는 전쟁에 패하며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불명예제대를 하게 됐다. 게다가 공산당 집권 후 패잔병이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던 그의 가족들은 시골 작은 농촌 마을로 숨어들다시피 이사를 떠났다고. 설상가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어머니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가세가 더 급격히 기울었다. 이에 아버지는 잃어버린 다리 대신 양팔을 걸어 올려 작은 시계 가게를 운영하며 6남매를 키워냈다. 그렇게 어렵사리 진학한 대학을 졸업하고 화승비나 영업부에 취직한 Ms. DIEN이 마음에 담아두었던 아버지에 대한 죄송함과 사랑하는 마음을 편지에 담아 전달한 것이다.

창립기념일 행사 시간에 맞춰 Ms. DIEN의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좁은 산길을 달린 지 두 시간 정도 지났을까, 자그마한 시골 마을의 한 집 앞에 차가 멈춰 섰다. 초인종 하나 없는 열 평 남짓한 집의 문을 두드리자 아버지는 여느 집 가정과는 약간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반겨주셨다. 두 다리 대신 양손에 나막신을 낀 아버지의 시선이 문 앞에

선 진행팀의 허리 높이 밖에 오지 않았지만, 환히 웃는 얼굴만큼은 누구보다 멋졌다.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손으로 악수한 후 행사장 이동을 위해 자동차에 올랐다.

원치 않은 전쟁으로 얻게 된 장애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초지일관 밝은 모습으로 인터뷰에 응하셨다. 거동이 불편함에도 딸과의 만남을 위해 새벽부터 정갈하게 옷을 차려입고 기다린 아버지에게서 깊은 사랑이 느껴졌다. 이동 중 나는 대화에서 그는 한국에 대해서도 매우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 비록 패전했지만 함께 피땀 흘려 싸운 한미 동맹 전우들을 기억한다며, 한국이 크게 발전해 베트남 경제 및 지역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그의 눈동자에 옛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사연 응모자와 가족에게 큰 감동을 주기 위해 '사랑하는 나의 가족' 수상자는 행사 당일까지 진행팀 외 누구에게도 철저한 비밀에 부쳐진다. 수상 여부가 궁금했던 Ms. DIEN 역시 매일 밤 아버지에게 회사에서 연락이 없었는지를 물었지만, 아버지는 사전에 약속한대로 태연한척, "아무 연락 없었는데!"하며 침실에 들었던다.



## 늦지 않게 도착한 행사장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삼삼오오 모여 미인대칭 사진전과 요리 대회 등을 구경하는 이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어있었다. 이내 공식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가 울리자 사람들이 무대 주위로 모여들었다. 사장님의 축사가 끝난 후 바로 '사랑하는 나의 가족' 시상식이 진행됐다.

혹시 내 편지가 낭독되지 않을까 하는 사연 응모자와 어떤 사연이 선발됐을까 하는 관중들의 설레는 마음은 모두 같았을 것이다. 무대 뒤 휠체어에 앉아 자신의 딸 이름이 불리길 기다리는 Ms. DIEN 아버지의 표정에서도 왠지 모를 긴장감이 묻어났다.

드디어 사연·편지 우수자 TOP5의 이름이 호명됐다. 기대치 않게 이름이 불린 다섯 명의 후보는 놀란 마음을 진정할 틈도 없이 무대로 뛰어올랐다. 최종 우승에 대한 기대로 웃음 짓기도 잠시, 후보들은 갑자기 떠오른 가족 생각에 눈물을 글썽거렸다. 처음 부모가 됐을 당시의 기억, 산부인과에 누워 내 아이의 손을 맞잡던 감동의 그 순간부터 떠나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의 무릎에 기대어 동화책을 읽던 옛날 옛 시절까지, MC와 TOP5 후보들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의 마음에도 각자 가족과의 추억이 차분히 내려앉았다. 대망의 최종 우승자 발표 시간. 모두들 숨죽여 MC의 입에 시선을 고정하자 그가 힘차게 외쳤다.

"축하합니다, 영업부서 Ms. DIEN!"  
무대는 박수와 함성으로 들쭉였다. 아쉽게 우승하지 못한 참가자들 역시 진심 어린 박수로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Ms. DIEN이

두 다리 대신 양손에 나막신을 낀 아버지의 시선이 문 앞에 선 진행팀의 허리 높이 밖에 오지 않았지만, 환히 웃는 얼굴만큼은 누구보다 멋졌다.



앞으로 나와 자신이 써낸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반쯤 읽어 내려갔을까, 무대 아래에서 하나둘씩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각자 다른 환경, 가정, 국적 속에 지내왔지만 그 순간만큼은 화승비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공감하고 위로하고 있었다. Ms. DIEN 또한 이내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 인가요?”

“아빠, 아빠가 보고 싶어요.”

“아버지를 만난다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 해본 거 같아요, 감사하고 너무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 염원을 담아 멀리 집에 계신 아버지가 들으실 수 있을 만큼, 우리 모두 크게 아버지 사랑한다고 외쳐볼까요?”

MC의 말에 모두가 입을 모아 외쳤다.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무대 뒤에 숨죽여 앉아있던 아버지가 무대로 올라섰다.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난 순간, 모두가 힘차게 박수갈채를 보냈고 Ms. DIEN은 바로 아버지에게 달려가 품에 안겼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고 곳곳이 가족을 지켜낸 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다.

“아빠는 우리 가족의 튼튼한 두 다리가 되어주신 영웅이에요.”

Ms. DIEN의 마음 깊은 고백에 화승비나 가족들이 다시 한 번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이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모두를 놀라게 한 건 다름 아닌 우승 상품이었다. Ms. DIEN 가족의 특별한 사연을 들은 이 계열 대표가 기존의 가족 동반 판티엣 여행권을 한국 여행권으로 상향하여 특별 포상한 것이다.

작업자 한 명 한 명에게까지 세심한 관심과

‘사람 중심의 윤리 경영’으로 소통하는 화승의 문화는 이렇게 머나먼 베트남 땅에서도 꽃을 피운다.

사랑을 보이는 이 대표의 경영방침을 토대로 회사에서 경비를 전액 지원하여 Ms. DIEN 가족은 한국으로 가족 동반여행을 떠나게 됐다. 현석호 부회장의 시상에 화승비나 가족들은 모두가 자기 일처럼 축하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다.

행사가 모두 끝난 뒤, 아버지의 두 손을 꼭 맞잡고 집에 돌아가는 Ms. DIEN 가족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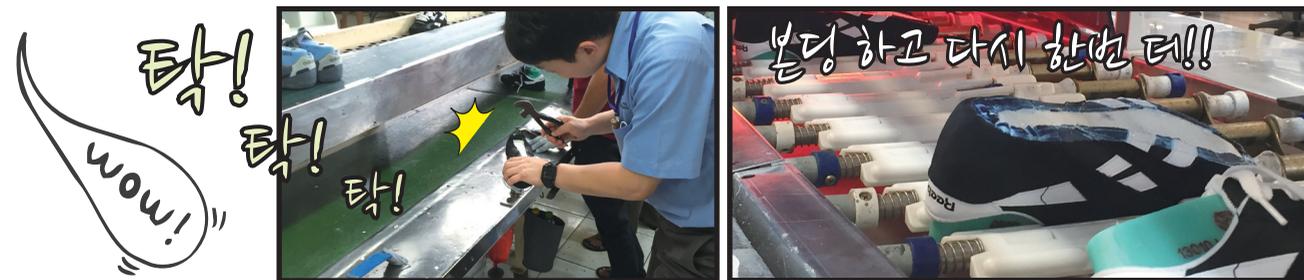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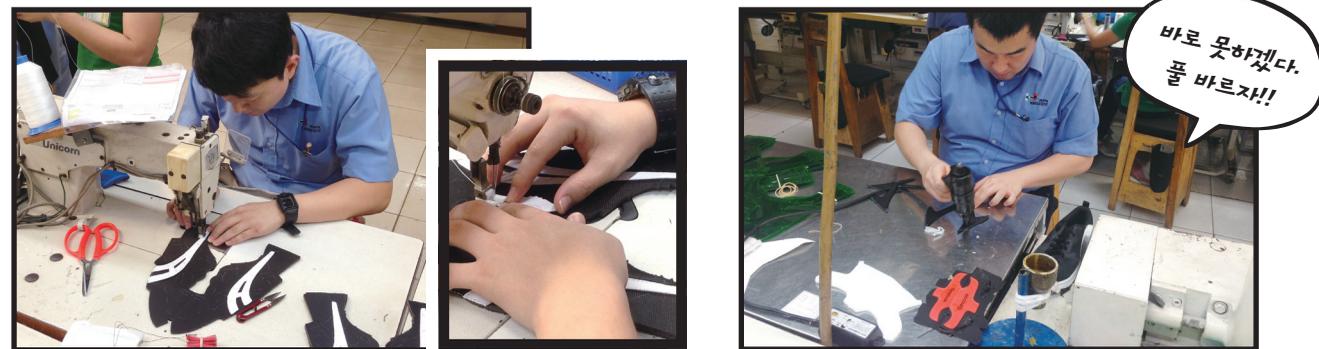
뒷모습이 참 아름다웠다. 옛 중국 고사성어 중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다. 가정이 화평하면 모든 일이 잘 해결된다는 이 의미처럼, 업무에 대한 성과와 회사에 대한 비전은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에게 있다. ‘사람 중심의 윤리 경영’으로 소통하는 화승의 문화는 이렇게 머나먼 베트남 땅에서도 꽃을 피운다. 🇻🇳



# 한 켤레의 신발을 만든다는 건 한 사람의 인생을 일구는 것과도 같은 것

화승비나의 직원이 되기 위한 통과이레가 있다. 그것은 바로 약 세 달 동안 전 공정을 거쳐 신발 한 켤레를 직접 만드는 미션을 성공해야 하는 것. 세상에서 제일 편하고, 감각적인 신발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의 미래를 보게 된다. 아디다스 개발팀 이태경 사수가 직접 만든 포토톤을 통해 경주 드림센터 그룹 신입사원 교육에서 만났던 새내기들이 지금 어떤 변화를 거듭했는지 함께 지켜보자.

Editor 김병호 그룹홍보팀 차장 + Photo 정영섭 화승비나 교육팀 과장 + Photo Toon 이태경 화승비나 아디다스 개발팀 사원





### 화승비나 프레스팀 김현철

신발에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갑피이지만 잘 안 보이는 바텀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각 공정을 돌며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신발을 완성하겠다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했다. 신발이 QIP를 통해 검사를 마치는 순간 뿌듯한 전율이 일었다. 지금까지의 힘든 과정이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손에 상처를 입고 좌절의 순간도 있었지만 다 이겨 낸 결과물이 두 켤레의 신발이었다. 돌아보니 생산 현장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주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모든 것을 완벽히 배울 수 없었다는 안타까움도 있다. 교육 받는 동안 제2, 3공장의 현장을 돌며 느낀 건 정말 현지 직원들이 자기 역할에 충실하다는 것이었다. 신입이어서 여러모로 부족한 나를 배려해주고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며 이것이 화승의 힘이란 걸 느꼈다.

### 장천제화대련유한공사 계획부 서은관

10주라는 긴 시간이 신발 두 켤레로 끝난다 생각했는데 막상 완성하고 나니 아쉬운 감정이 든다.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내 손으로 처음 완성한 신발이라 더 남다르고 보람찼다. 직접 만들었을 때 느끼는 뿌듯함이 생산부서의 매력이라 확신한다. 그리고 새로운 부서 생활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공존하기도 한다. 화승에 입사해 어느 부서에 가서 어떤 업무를 맡더라도 회사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계기를 얻었음에 감사하다. 10주 동안 배운 교육들, 특히 제2공장과 제3공장에서 직접 맘 흘리며 눈과 손으로 익힌 이 기술을 화승의 자부심으로 남기고 싶다.



2015년 1월, 그룹신입사원 교육에서 함께했던 화승비나 신입사원들



### 화승비나 아디다스 개발팀 이태경

드디어 신발 두 켤레를 완성했다. 10주간의 교육을 마무리 짓는 의미 있는 신발이었기에 더욱더 정이 가는 이 신발. 배우는 과정은 길고 힘들었지만 완성하는 데 걸린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공정을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연습했던 일들이 떠올라 감회가 남다르다. 처음엔 바늘이 무서워 한 땀 한 땀 새길 때마다 깜짝 놀랐던 걸 생각하면 지금도 피식 웃음이 나온다. 신발을 보고 있자니 '내가 진짜 신발 OEM 회사에 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보면 볼수록 뿌듯해서 자꾸만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내가 만든 신발. 비록 완벽한 신발은 아니지만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에 성취감을 느낀다. 앞으로 소속될 부서에서도 지금과 같이 열심히 생활해서 화승비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인재가 되리라 또 한 번 가슴에 새긴다.



### 화승비나 QIP팀 전봉근

현장은 신세계였다. 우선 업무와 관련 있는 기본 지식도 많이 늘었지만 신발에 대한 관점이 크게 바뀐 것 같다. 운동화는 단순히 사고 신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열기 속에서 생산자들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것을 배웠다. 신발 두 켤레를 만들고 나서 제2, 3공장에서 실습을 도와주고 가르쳐 줬던 베트남 생산 직원들에게 찾아가 인사를 건넸다. 웃음으로 반겨주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조금이나마 하나가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처음 현장 실습을 시작하던 날, 황국희 상무님께서 말씀하셨던 '생산 현장엔 신발의 꽃'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햇빛과 물이 있어야 봉우리가 만개하듯, 한국인 관리자와 베트남 생산자들의 열정을 영양 삼아 신발이란 꽃이 피는 것 같다. 교육을 끝으로 나는 새로운 부서 배치를 받게 된다. 걱정 반, 긴장 반이지만 그 부서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2015 화승그룹 임원화요특강

# 글로벌 경제 트렌드를 읽다

화승그룹에서 특별한 강의를 있었다. 지난 5월 19일 이른 아침, 화승그룹 임원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제 트렌드를 읽기 위한 '2015 화승그룹 임원 화요 특강'이 진행된 것. 이른 시각, 강의장을 꽉 매운 그룹 임원 34명은 최신 경제 동향 파악을 위해 각자의 수첩과 펜을 꺼내 들었다.

경제 변동이 매우 심한 요즘 시대에 이론만으로 글로벌 경제 흐름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교육의 최초 시발점은 화승그룹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제 상황 파악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룹교육팀은 자사, 경쟁사, 고객 등 다양한 입장에서 의 현실적인 이슈를 파악하여 전체적인 통찰력 증대를 목표로 화요특강의 문을 열었다.

우선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한 글로벌 경제 트렌드에 대한 전문가를 찾았다. 무엇보다 새로운 신사업 성장 동력, 그리고 조직과 구성원 내실화와 관리에 대한 이슈에 대한 전문성도 절실했다. 필수 조건만족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강사로 '선대인 경제 연구소 소장'이 선정되었다. 올해 총 5회에 걸쳐 진행될 임원화요특강은 인문학적 소양을 위한 인문경영 및 최신 시사 트렌드 등 총 5개의 주제로 개최된다. 국내외 경제를 바탕으로

중국과 인도의 경제 성장 잠재력과 미국, 유럽 등 각 국가의 경제시장에 대한 정책과 대응들에 대해서 선대인 소장만의 노하우가 쏟아져 나왔다.

어떻게 보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경제 흐름에 대비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은 상당히 곤혹스럽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했던가? 현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혁신은 이미 시작되었다. 문제의 원인을 도출하고 실행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면 앞으로 화승그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드러날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모든 계열사 임원의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네트워크를 도모할 예정이다. 큰 그림을 통해 경제 흐름을 읽으며 경제 트렌드의 선봉장으로서 세계 경제의 맥을 짚을 수 있는 맞춤형 전문가가 화승에서 탄생하기를 바란다. 🇰🇷



With Project ①

# Furniture DI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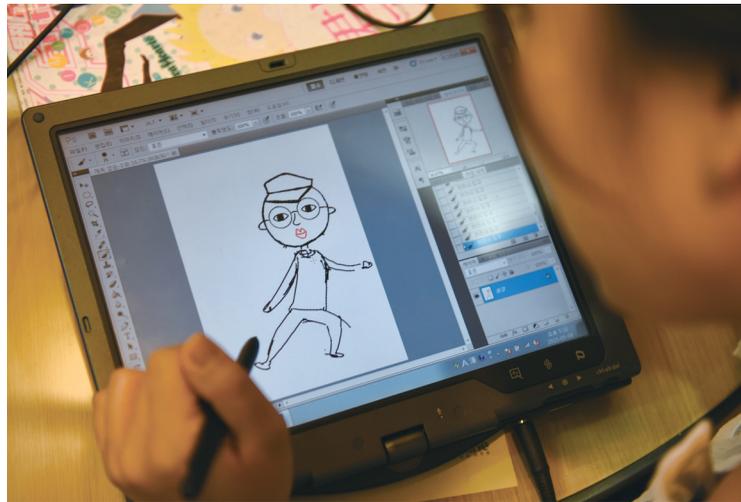
Writer + Photo 심일욱 그룹홍보팀 대리

## 〈화승 꿈틀 프로젝트: 꿈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2기 소년 그리고 소녀들의 꿈을 후원하다

2014년에 시작된 사회공헌 프로젝트 〈화승 꿈틀 프로젝트: 꿈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작년 한 해 동안 화승그룹 직원과 부산 신재활원 장애인이 함께 활동하며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던 꿈틀이들의 활동이 2015년 또다시 새롭게 찾아왔다. 화승그룹의 직접사업형 사회공헌으로 진행된 프로젝트로 올해는 화승그룹 직원 10명과 청소년·장애인 친구들 10명이 1:1로 매칭되어 평소 꿈꿔왔던 바리스타, 요리, 가구DIY, 만화디자인 활동들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함께 배우게 된다.



# Ani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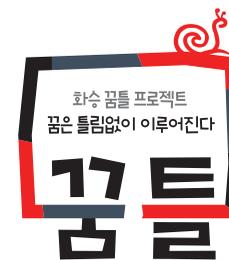


### 새롭게 그리고 더 크게 시작된 바리스타의 꿈

중학생, 고등학생, 커피 기계 앞에서 소년, 소녀들은 나이도 참 다양하더라. 칩- 소리를 내뿜는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서 호기심 한가득 눈에 담고 강사 선생님의 강의에 귀 기울이는 청소년들. 이들과 함께 짝이 된 봉사자들에게 멘토의 말 한마디에 주뻗거리는 아이들의 모습이 귀엽게만 보인다. 은은한 노랫소리가 흘러나오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커피 한잔으로 사람들에게 휴식을 주고 싶다는 기특한 소년·소녀들의 작은 꿈이 새롭게 시작됐다. 특히 드라마로 시작된 은영이의 바리스타 드림은 2015년 더 큰 희망으로 돌아왔다. 즐겁고도 고된(?) 바리스타 훈련으로 작년 말 자격증을 취득한 은영이는 짝지 봉사자 화승소재 헤리 언니와 함께 심화 과정에 들어갔다. 이미 자격증을 취득한 은영이는 다른 청소년 친구들의 멘토가 되어 올 한 해 멋진 바리스타로 거듭날 예정이다.



# Barista



### 요리로 세상과 만나고 싶다는 '곧미남' 3인방

갓 번성기가 지난 사춘기 세 소년의 칼질이 요리학원에 울려 퍼졌다. 요리 교육장에서 만난 마스터 셰프를 꿈꾸는 소년들, 서툴지만 맛있는 요리 한 접시 올리고자 이마에 땀 송골송골 맺어가며 불고기 양념 간을 맞춘다. 지글지글 요리 완성하고 맛있다며 하이파이에 환호를 보내는 남녀(男女)팀과 달리, 남남(男男)팀은 조용히 데코레이션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이 내심 안쓰러웠다. 어여쁜 누나, 귀여운 여동생 멘토멘터를 얻진 못했지만 특유의 쿨한 협업으로 궁극의 맛을 이끌어낸 민석·경준팀은 요리 선생님의 1등 평가를 얻어냈다. 하지만



# Cooking





요리팀의 갈 길은 아직 멀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 주말 수업만으론 모자라 평일에도 수업을 받는 세 소년들. 쉽지 않은 여정이겠지만 겁먹지 않고 도전해보겠다며 프라이팬을 흔드는 듬직한 소년들의 다부진 의지, 불꽃이 되어 요리로 승화되리라.

**연습장 한편에서 시작된 재능의 발견**

공부 꽤나 했을 법한 아이들의 어느 연습장 한 귀퉁이에도 분명 만화가 그려져 있을 것이다. 연필 한 자루로 나만의 세상을 그리고 싶었던 두 소녀는 프로만화가 선생님과 함께 꿈을 향한 작은 터치를 시작했다. 2014년 <DBT> 겨울호에 소개된 캐릭터 그리기 마니아 화승R&A 이예리 소녀(?)와 하은 소녀에게 공책 한편에 그려오던 캐릭터를 진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라인 만화학원 원장 조용도 선생님은 두 소녀가 아직 기본기는 부족하지만 자신만의 캐릭터가 분명해 앞으로 매우 기대된다고 한다. 하은 소녀의 꿈은 멋진 제복을 입은 경찰이라고 하지만 혹시 또 모르지 않는가, 만화가가 천직이 될 수도.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해볼 수 있는 나이, 화승 꿈틀 프로젝트는 하은 소녀처럼 작은 꿈이 있는 친구들에게 흔쾌히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해볼 수 있는 나이,  
화승 꿈틀 프로젝트는 작은 꿈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흔쾌히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겠다는 큰 꿈의 소년**

2014년 부산에서만 진행되던 화승 꿈틀 프로젝트. 2015년에는 더 나아가 서울의 한 진지 소년의 꿈도 공유할 수 있었다. 전통한옥 건축가가 꿈이라는 대영이는 어릴 적부터 이것저것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너무 좋다고 했다. 앞으로의 꿈에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진지 눈빛을 쏘던 소년은 결국 화승 꿈틀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의 한 공방에서 가구DIY 수업을 들으며 씨익- 웃을 수 있었다. 아빠 미소 가득한 공방 선생님의 교육으로 조금씩 자신의 꿈을 다듬는 대영이. 고3이어서 그런지 나무 손질 질문만큼이나 입시관련 질문도 많다. 멘토 육진 씨 또한 업무로 바빠지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대영이의 입시 상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진지 소년의 꿈이 화승 꿈틀 프로젝트를 통해 더욱 빛나길 기대한다. 🇰🇷



※ 화승 꿈틀 프로젝트 2기 활동에 참여해주시는 고마운 분들  
: 카페해인두밀 강지석 바리스타 / 코코바리스타학원 / 한국제일요리학원 부산동래점 / 공방 나무풍경 송파점



매년 예술치료캠프에서만 입을 수 있는 WATA의 화승그룹 티셔츠가 불티나게 팔린다. 그것도 연휴를 맞아 광화문 청계천을 찾은 외국인들이 너도나도 하나씩 손에 든다. 올여름, WATA와 화승그룹이 담긴 티셔츠가 거리를 시원하게 수놓을 것 같다. 매년 여름, 예술치료축제와 겨울, 가족 캠프를 통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허물고, 동등한 눈높이에서 문화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시작의 장을 여는 세계예술치료협회(WATA)가 서울 광화문 청계천 광장에서 세 번째 장을 열었다.

##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주문

### 아사라비아

케이스위스 운동화를 비롯한 옷과 액세서리, 소품은 물론 WATA 후원자들의 소장품이 즐비한 청계천 광장의 토요일 아침, 바자회는 물론 공연에 체험까지 이어지는 아사라비아만의 나눔, 공감의 장터가 꿈틀대고 있다. '장애가 인정되는 세상을 만나다'라는 모토의 WATA는 이 바자회를 통해 인식을 바꾸고, 여름 캠프를 위한 기금을 마련한다. 더불어 장애아동들의 직업 창출을 위한 유기견-치료견 프로젝트 후원금을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이기도 하다. 2회 바자회에 이어 이번에도 캠프에 꾸준히 참여해온 장애 청소년에게 하루 일당을 지급하는 일일 판매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장애 청소년에게는 일반 친구들과의 소통 및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간접 경험을, 일반 친구들에게는 장애 친구와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할 수 있는 소통의 만남이 이뤄진다. 특히 발달장애 어린이로 WATA의 시작과 함께해 이제는 어엿한 청소년인 김수환 군의 나비 그림 작품 전시와 판매가 함께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지난 4월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 이미지 첫 개인전을 열었던 김수환 군은 예술치료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 따뜻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세계예술치료협회 센터를 지어 장애인과 소외계층에게 예술로 소통하고, 문화를 공유하는 내일을 꿈꾸는 WATA의 소망. WATA의 아름다운 소망이 이뤄지는 주문 또한 '아사라비아'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화승R&A 여울회 부산 드림백 만들기 참가

# 사랑 가득 꿈을 후원하는 책가방

지난 5월 23일, 부산 사직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전국 규모의 자원봉사축제, '대한민국 자원봉사 물결운동 선포식 및 부산 V-페스티벌'에 화승R&A 여직원으로 구성된 동호회 '여울회'가 함께했다. 전국 자원봉사센터 관계자와 부산지역 자원봉사단체 회원 등 1만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자원봉사 물결운동 선포식을 비롯해 참가자들이 각자 준비한 학용품에 희망 메시지를 써 가방에 담은 '부산 드림백 만들기'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의 정성이 가득 담긴 드림백 2천여 개는 지역 자원봉사센터와 국제구호단체를 거쳐 국내외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전달된다. 여울회 회장을 맡고 있는 화승R&A 국내영업팀 윤주희 대리는 단합을 위한 모임도 좋지만 이런 뜻깊은 봉사활동에 자주 참석할 수 있도록 정기 봉사활동을 계획 중이라며 여울회의 따뜻한 행보를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행정자치부 정중섭 장관, 부산광역시 서병수 시장, 화승그룹 박동호 전무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의 실천  
2015 화.승.이.랑.

계절 변화에 무감각해진 그대에게, 코끝으로 전해지는 풀냄새로 봄을 알려준 화승이랑.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모습에 물 한 바가지 더 주고, 손톱 밑에 까맣게 끼는 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꾸었다. 그렇게 보낸 2개월, 찬 기운이 채 가지도 않았던 3월에 뿌린 씨앗이 어느덧 파릇한 이파리가 되어 우리에게 다시 돌아왔다.



### 화승이랑은

2014년부터 시작된 화승그룹의 화승이랑은 직원들이 직접 밭을 가꾸며 작물을 키우는 대표적 직원 복지 나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부산 경남 계열사 26가족이 30이랑을 돌보기로 했다. 5월 상반기 공동 수확 때에는 각 가정에 충분한 양을 제공하고 난 나머지 수확분을 계열사 식당에 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불우 이웃을 돕는다. 지난 3월 7일에는 부산 중구 노인복지회관의 협조를 받아 어려운 환경의 한 가정을 방문하여 환경정리와 함께 '2014년 화승이랑 수익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파종, 수확, 그리고 나눔의 기쁨까지 화승이랑을 통해 얻은 기쁨이 마음속 깊이 전해진다.

### 2015 화승이랑 상반기 공동수확

이른 아침, 화승이랑으로 삼삼오오 모여든 사람들. 훌쩍 커버린 상추와 각종 야채들이 꽉 매운 화승이랑 감상도 잠시, 뜨거운 햇볕 아래 직원들의 손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수확한 야채는 총 80kg. 뜨거운 날씨에 해라도 입을까 열른 상자에 담아 식자재 창고로 이동! 모두 흙과 뿌리를 제거하고 깨끗이 씻긴 후, 다음날 직원들의 점심 메뉴로 식탁에 올랐다. 아들거리는 봄 상추와 각종 야채를 손에 쥘수록 한입에 썩~ 금세 피로도 스트레스도 달아나버리는 것만 같다.





### 화승이랑일지

# 첫째 주  
행어나 비침에 날아가지 않을까, 흐르는 물에 씻겨 내려가지 않을까 노심초사.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자그마한 씨앗이 싹을 트을 거란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기 시작한다.

# 둘째 주  
파종을 한 지 1주가 지나면 싹이 난다. 제대로 물을 덜어주지 않아 물에 떠내려간 흙, 무방비로 노출되어 이성 짐승에 잡혀 먹은 흙을 제외하면 싹 훌륭하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자란 아이들이다.

# 셋째 ~ 넷째 주  
제법 모습을 갖추가는 화승이랑.

# 다섯째 주  
이때쯤이면 '숙아주기'가 필요하다. 겹겹이 엉겨붙은 상추와 각종 채소가 더 잘 자라게 하기 위한 과정이랄까? 뿌리와 뿌리 사이의 공간을 확보하여 공기를 통하게 하고 자리를 정리해준다. 이때때 먹는 채소가 가장 부드럽고 맛있다.

# 여섯 ~ 마지막 주  
적절한 시기에 내려준 비, 직원들의 정성으로 가꾸어진 화승이랑. 상추, 지커리, 양상추, 쑥갓, 열무, 얼갈이배추, 근대 등. 그야말로 풍년이다.

파종의 기쁨, 수확의 기쁨, 그리고 나눔의 기쁨까지 화승이랑을 통해 얻은 기쁨이 마음속 깊이 전해진다.

### 화승이랑의 진심

화승이랑은 직원들로 하여금 체험을 통해 땅의 소중함 깨닫기와 공동체 유대감 강화라는 목표로 시작되었다. 웃음 만발한 체험을 통한 이 과정에서 기쁨과 보람을 얻는다. 가치를 따질 수 없는 화승이랑의 진심. 뜨거운 여름을 지나 곧 하반기를 맞이할 화승이랑 식구들의 두 번째 이야기가 기다려진다. 모든 이의 행복과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마음 따뜻한 사람이 사회 도처에 전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화승이랑은 계속된다. 쭈욱~🇰🇷





# 최고의 혁신과 기업가치로 고객과 소통하다 화승R&A, FCA US 최우수 공급업체 선정



지난 4월 21일, 미국 디트로이트시 Motor City 호텔에서 개최된 제5회 FCA US 우수 공급 업체 시상식에서 화승R&A가 최우수 공급업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올해로 5년째인 이번 행사는 품질, 혁신, 지속적 향상, 원칙 준수 등 각 주요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급 업체에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다. 수상 기준은 총 17개 부문으로 제조/비제조 업체에 해당하며 운영 효율성뿐 아니라 다양성, 혁신성, 지속성 등의 기업 가치를 보여준 업체들을 대상으로 시상이 이루어졌다. 올해는 각 회사의 2014년도 EBSC 성적(External Balanced Scorecard: FCA 자체 평가 시스템으로 품질, 납기, 가격, 위

런티, 협력성 5개 분야 평가)과 FCA 경영진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상이 결정되었으며, 그 결과 화승R&A가 최우수 공급업체로 선정되었다. Tom Finelli FCA 북미 구매 부사장은 행사에 참석한 1천여 명의 공급 업체 인사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공급 업체의 성공은 곧 FCA의 성공이고, FCA의 가치관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며 구매, 공급 업체 간의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화승그룹 현지호 부회장을 비롯해 화승R&A 김형진 미주 해외법인 총괄법인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2015 부산·울산 미스코리아 화승그룹 사옥 방문



# 화승그룹과 함께하는 제7회 부산MBC 자전거 페스티벌

화승그룹과 함께하는 제7회 부산MBC 자전거 페스티벌이 지난 5월 17일, 부산 대천초등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자전거 페스티벌은 친환경 도시 부산 만들기과 자전거 타기 운동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화승그룹이 매년 주요 협찬사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부산 자전거 동호인 2천여 명은 대천초등학교를 출발해 광안대교-수영강-센텀시티-광안대교 하판 등 총 16km 구간을 달리며 부산의 정경과 함께 봄날의 정취를 만끽하며 친환경 부산 만들기 운동에 앞장섰다.

지난 4월 27일, 2015 미스 부산·울산 지역 예선 입상자들이 화승그룹 본사(연산동) 사옥을 방문해 사옥 견학 및 사장단과의 간담회를 했다. 이날 입상자들은 대회 준비 중에 생긴 에피소드와 앞으로의 활동 포부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고, 그룹 회장단은 입상자들에게 격려와 덕담을 전하며 자리를 마무리했다. 2015 미스 부산·울산 진은 류정아 씨(21)가 차지했으며, 선은 조수아 씨(24), 미는 안혜령 씨(22), 협찬사 화승그룹 상에는 김아름 씨(24)가 선발되었다. 이번 2015 미스부산·울산 진, 선, 미에 선발된 세 명은 2015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본선에 부산·울산 지역을 대표하는 TOP3 자격으로 출전한다.



# NEWS



**화승그룹**  
업그레이드 된 화기애애(和氣愛愛)2  
회장님이 쓴다! 쓴다! 쓴다!

화승그룹의 기운돋우기 프로젝트 화기애애2 : 회장님이 쓴다(시즌2)가 한층 업그레이드되었다. 한 달에 한 번, 현승훈 회장이 제시하는 주제에 가장 적합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보낸 직원에게 개인 상금과 해당 소속 팀의 회식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 3월을 시작으로 현재 (5월 기준) 총 6팀이 선정되었으며 매달 새로운 주제로 직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탁 트인 바다 위를 걷는 뚜벅이들의 축제**  
다이아몬드브리지 걷기축제 후원

지난 5월 10일 국제신문이 주최하는 2015 다이아몬드브리지 걷기축제가 부산 해운대와 광안대교 일대에서 열렸다. 부산광역시, 좋은데이, 화승그룹 등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3만 3천여 명의 부산·경남시민들이 부산 대표 상징물로 알려진 광안대교 위를 걸으며 콘서트, 기부행사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함께 진행됐다. 경품 추첨을 끝으로 마무리된 이날 행사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의미로 비교적 차분하게 치뤄졌으며, 함께 노력하고 노란 풍선을 하늘로 날려 보내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소통과 공감으로 만드는 아름다운 교실**  
제14회 아름다운 학교 및 올해의 참 스승상 시상식



지난 5월 15일, 화승그룹이 후원하고 부산 YMCA,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주최하는 제14회 아름다운 학교 및 올해의 참 스승상 시상식이 KNN 시어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을 비롯해 부산YMCA 신관우 이사장, 화승그룹 박동호 전무이사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시상은 '아름다운 학교상', '참스승상', '학급상', '동아리상'의 총 4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화승그룹 박동호 전무이사는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의 도시 부산, 교육받고 싶은 도시 부산이 될 수 있길 기원한다는 뜻을 전했다. 화승그룹은 아름다운 학교 시상식 1회부터 14회까지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한국-베트남 민간외교의 장!**  
베사모 행사에 운동화 100족 후원

지난 5월 31일, 화승그룹은 베트남을 사랑하는 모임(이하 베사모)에서 주최한 2015 한-베 대학생 문화교류 포럼에 운동화 100족을 후원했다. 베사모는 2002년 부울경 지역 일부 대학교수 소모임으로 출발해 현재는 외교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정부와 정·재계에서도 알아주는 단체가 됐다. 유학생, 근로자, 결혼 이주민 등 국내외 현지 베트남인들을 위해 꾸준히 민간 외교 활동을 펼친 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부울경 지역의 베트남 유학생들과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베트남어 말하기 대회도 진행됐다.



**화승R&A**  
부모님, 사랑합니다!  
어버이날 효도관광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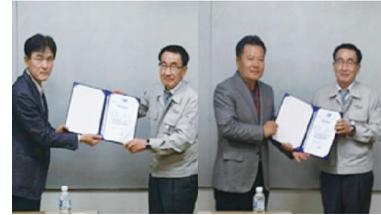
지난 5월 8일, 화승R&A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 209여 명의 임직원 부모님을 모시고, 어버이날 기념 효도관광을 진행했다. 화승R&A에서 출발해 하동 쌍계사, 화개장터, 부곡온천을 방문하는 여정으로, 일일 봉사단으로 나선 직원들의 세심한 배려로 무사히 여행을 마쳤다. 본 행사는 부모님의 감사함을 기리기 위해 매년 뜻깊은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화승소재**  
경남 창조경제 활성화 위한 도약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 참가

지난 4월 9일, 화승소재 허성룡 대표이사는 경남 창원과학기술진흥원에서 열린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방자치단체와 대기업이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를 발전시키는 기관으로, 경남센터는 전국에서 9번째로 문을 열었다. 이날 화승소재는 경남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6대 시범프로젝트 중 하나인 연료탱크 부품 국산화 개발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와 MOU를 체결했다.

**현대기아차 협력사**  
SQ인증(배합고무부문) 획득  
금덕, SM폴리텍



화승소재는 지난 3월 26일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 품질보증인증시스템(배합고무부문) SQ인증 획득에 따른 인증 전달식을 가졌다. 화승소재 협력사 금덕, SM폴리텍은 현대기아자동차 부품소재 공급 공식 협력사로 승인되어, 우수한 품질의 CMB고무를 공급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파트너로 SQ(협력사 품질보증)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인증받았다.



**화승엑스월**  
소통으로 성장하는 기업  
창립 8주년 기념식 개최

화승엑스월은 지난 4월 1일 장천빌딩 8층 본사 대회의실에서 창립 8주년 기념식 행사를 가졌다. 변수강 대표이사는 기념사에서 '경쟁력 강화, 수익성과 내실 경영, 글로벌 환경에 대한 유연한 대처, 소통' 등 4가지 키워드를 강조했다. 변수강 대표는 특히 소통을 통해 목표를 이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화승엑스월은 창립 8주년 기념식을 맞아 모범사원상, 장기근속상을 수여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화승인더스트리**  
노사가 함께 웃는 회사  
아산시 노사평화상 수상

지난 5월 22일 화승인더스트리가 2015년 아산시 기업체 부문 노사평화상을 수상했다. 화승인더스트리와 동사 노동조합은 1994년 노



동조합 설립 이후 현재까지 21년간 무분규 사업장을 유지하여 노사평화를 이루어 왔다. 특히 금년부터 4조 3교대로의 교대제 개편을 통해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이에 노동조합은 2년간 임금 동결 등으로 회사 부담을 덜게 해주는 등 노사 상생의 길을 개척한 부분이 높이 평가되어 수상 업체로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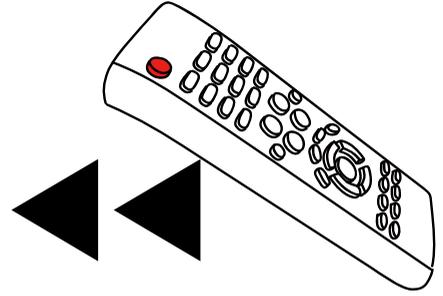
**46년 끊이지 않는 식구들의 축하파티**  
창립 46주년 기념식 개최

화승인더스트리 창립 46주년 기념식이 지난 5월 6일 아산공장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모범사원 표창, 장기근속자 표창, 우수제안부서 및 우수제안사원 시상식이 진행되었으며 팀MBO 우수부서도 시상하였다. 한편, 회장 표창은 영업3팀 김세호 매니저에게 돌아갔다.

<p><b>그룹 임원 인사</b></p> <p><b>신임</b> 조석찬 이사부장 HSD (생산담당) 전보 및 겸직</p> <p><b>이정두 전무이사</b> (주)화승T&amp;C 각자대표이사 전무, (주)화승공조 대표이사 전무 → (주)화승T&amp;C 각자대표이사 전무, (주)화승공조 대표이사 전무, (주)화승인더스트리 화학사업부 총괄</p> <p><b>최요휘 전무이사</b> (주)화승네트웍스 영업총괄 → (주)화승네트웍스 영업총괄(HSNA, HSVN, HSNi 겸직)</p> <p><b>김승희 상무이사</b> HST 법인장 → 화승R&amp;A 중국해외법인 총괄법인장, 화승R&amp;A 영업1본부장(국내 및 현대/기아), 기술연구소장(설계, 개발)</p> <p><b>김형진 상무이사</b> HSAA 법인장 → 화승R&amp;A 미주해외법인 총괄법인장, 화승R&amp;A 영업2본부장(미주, 유럽)</p> <p><b>김성희 이사</b> HST, HSB, HSR 관리총괄 → (주)화승네트웍스 관리담당(화승엑스월, HSNA, HSVN, HSNi 겸직)</p> <p><b>김태균 이사</b> (주)화승T&amp;C 화학사업부 담당 → (주)화승인더스트리 화학사업부 담당(연구소, 생산, 품질, 영업)</p>	<p><b>이명식 이사</b> HSAA 생산담당 → HSAA, HSAU 법인장</p> <p><b>권태곤 이사부장</b> HSB 법인장 → HST 법인장</p> <p><b>김영중 이사부장</b> 기술연구/개발 담당, OPP/PET 영업 담당 → 기술연구/개발 담당, 영업총괄(OPP, PET, 통기, PV사업)</p> <p><b>서정욱 이사부장</b> HSP PV 사업담당, (주)화승인더스트리 PV사업/통기 영업 담당 → HSP PV 영업 담당</p> <p><b>이재욱 이사부장</b> (주)화승T&amp;C 화학사업부 연구소 담당 → (주)화승인더스트리 화학사업부 연구소 담당</p>
<p><b>COMMUNICATOR</b></p> <p>화승그룹총괄 홍보팀 김병호 차장 홍보팀 박치선 대리, 심일호 대리 화승R&amp;A 황지희 (기획팀 사원) 화승소재 임상호 (기획팀가림 대리) 화승T&amp;C, 화승공조 이재훈 (관리팀 사원) 화승네트웍스 박규인 (기획총무팀 대리) 화승엑스월 박지현 (영업지원파트 대리) 화승인더스트리 김연식 (총무팀 매니저) 미국 HSAA 박강찬 과장 베트남 화승비나 정영섭 과장 중국 HST 김성우 과장</p>	

# NEWS

# 지금 당장 돌아가고 싶은 그때, 언제인가요?



**유은영**

결혼 전 처녀 때로 돌아가 밤새 술도 마셔 보고 싶고, 여행도 다니고 싶어요. 그리고 조금 더 많은 남자를 만나 볼 걸 그랬습니다. 자유롭던 그 시절이 가장 그리네요.

↳re: 저도요.

**김기학**

올해 머리카락이 더 빠지면서 흰하게 드러난 이마가 빛을 발사해 한숨이 늘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정말 풍성했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니 돌려주세요. 제발.

↳re: 고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서지혜**

젊을 땐 별생각 없었는데 50대가 되니 40대도 예뻐 보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마흔 살로 돌아가 곁에 화장한 얼굴로 남편의 아침밥도 차려주고 싶고, 아이들 하룻길에 마중 가서 꼭 안고 같이 집에 오고 싶어요.

↳re: 세월의 흐름을 차곡차곡 간직해 온 서지혜님!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우실 겁니다.

**조 석**

사랑하는 마음만 가득할 뿐 숫기 없던 제게 결혼하자고 먼저 프로포즈해줬던 아내. 지금은 말쑥꾸러기 두 아이의 엄마, 철없는 한 남자의 아내로서 우리 가족의 행복한 보금자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십 년 전 그때로 되돌아가 아내에게 멋지게 사랑 고백을 하고 싶네요. “사랑한다, 수희야! 나랑 꼭 결혼해줘!”

↳re: Yes♥

**유광열**

보리밥에 검정 콩자반이 들어있던 내 도시락. 흰 쌀밥을 싸온 아이들이 부러워서였을까요? 어머니 몰래 일부러 도시락을 챙겨가지 않고는 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행여나 배고플까 고개 넘어 학교까지 도시락을 가져다주고 돌아가시던 어머니. 그때로 돌아

갈 수만 있다면 어머니의 보리밥 도시락, 하나도 남기지 않고 맛있게 먹을 겁니다.

↳re: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가 생각납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박주영**

국민학교 시절 동네 친구들과 온갖 놀이를 했던 게 많이 생각납니다. 제가 힘이 좋았던지라 딱지치기만 했다 하면 백전백승! 동네 딱지 수백 장을 쓸어 모았던 기억이 나네요.

↳re: 혹시 그때 제 소중한 딱지 다 쓸어가신 분이신가요? 한판 붙읍시다!

**정창재**

첫사랑과 함께 덕수궁 돌담길을 걸으며 미래를 약속했던 그때, 많이 걸어 다리가 아프다며 내 어깨에 기댔던 그때, 행복하고 황홀했던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

↳re: 그 첫사랑이 지금 옆에 계시는 분...이겠죠...?

**송재하**

산촌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여름이면 가족끼리 초가집 마당에 모깃불 피워놓고 갓 찌낸 감자와 옥수수, 시원한 수박을 먹었죠. 어린 날의 추억 속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re: 수박 서리하다가 걸려서 궁뎅이 불났던 그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오지호**

첫 미팅에서 지금의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로 당장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순수했는데. 나 돌아갈래~!

↳re: 지금은 어떠한지 왓시 상상이 가고 눈물이 납니다.ㅠㅠ

**오혜인**

누가 대학 가면 실컷 놀 수 있다고 했나요? 대학 새내기인데 설 틈이 없습니다. 고3 때, 기숙사 친구들과 ‘대학가 환상’을 꾸며며 공부했던 때가 그리웁습니다. “애들아! 치킨 끈에 매달아 3층으로 배달받던 것 생각나?”

↳re: [기숙사 사감 선생님]: 니네들이었냐? 잡히면 죽는다~

## ■ 2015년 화승그룹 사보 <DBT> 보호 독자엽서 당첨자



**여행스케치**  
3개월 무료  
구독권

김남일(강원도 강릉시 토성로), 서육희(부산시 기장읍 내리), 김민정(인천시 남구 주안5동) 박찬영(전남 진도군 의신면)

양서정(전북 장수군 장수읍)



**1만 원권**  
온누리 상품권 5장

유은영(인천시 동구 화수동), 김기학(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서지혜

(충남 서산시 동서1로), 조석(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유광열(대전시 중구 서문로), 박주영(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정창재(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송재하(대구시 수성구 만촌1동), 오지호(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오혜인(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우수 독자엽서에 당첨되신 분들께는 월간 <여행스케치> 3개월 무료 구독의 행운이 주어집니다.

독자엽서에 선정되신 분들께는 1만 원권 온누리 상품권 5장이 사은품으로 발송됩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 주요 전통시장과 1,500여 개 가맹 전통시장에서 현금처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첨되신 분께는 개별 연락드리오며, 연락을 받지 못하신 분은 2015년 6월 30일까지 051-850-7037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이 없을 시에는 당첨이 무효 처리됩니다.